

KOTRA 국가정보

우즈베키스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
면적	448,978 km ²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2021년 11월 기준)
수도	타슈켄트(Tashkent)
민족(인종)	우즈베키스탄인(82.9%), 타직인(4.8%), 러시아인(2.7%), 고려인(0.7%), 기타(8.9%)
언어	우즈베키스탄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10%)
기후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 ○ 하절기(06~09월): 평균 기온은 15~36℃ 이며, 평균 강수량은 5mm로 일조량이 많고 매우 건조 ○ 동절기(11~02월): 평균 기온은 0~9 ℃ 이며, 평균 강수량은 33.8mm로 눈, 비로 인해 하절기보다는 강수량이 많지만 대부분 건조한 날씨 지속
국가원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2-01-29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2-11-20		
투자보장협정	1992-11-20		
과학기술협력협정	1992-11-20		
항공협정	1994-06-06		
이중과세방지협정	1998-12-25		
세관분야 공조협정	1999-12-01		
범죄인 인도조약	2004-11-23		
형사사법 공조조약	2004-11-23		
사회보장협정	2006-05-01		
외교관 여권사증 면제협정	2009-06-10		
수르길 사업 투자협정	2011-08-23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012-12-25		
관광협력협정	2013-01-09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2013-08-11		
보건의료 협력 협정	2015-05-28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협정	2015-05-28		

한국교민 수

1,839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 2019년, 2021 기준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포함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21년 1월 28일 화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에 대한 한국의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에는 양국 간 기업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필요한 사안들을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의 산업구조를 활용한 협력모델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KOTRA-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간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내 한국과의 경제 협력 전담 부서인 'Korea Department'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 6월 29일에는 한국무역협회 내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가 설립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2021년 1월 화상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 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인 동 협상은 우리 정부가 신북방 정책 대상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무역협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해 2020년 7월 연구를 완료하는 등 협상개시 전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4.26.-4.28까지 1차 협상을, 11.22~23.까지 2차 협상을 개최하고 상품교역,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규정, 통관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문화

고려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계승 및 유지되고 있으며, 고려인 동포 및 한국 문화에 친밀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음식 등에 관한 관심이 높다. 2000년대 초 우즈베키스탄 공중파 TV를 통해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많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매년 영화제, 주니어 태권도 대회, 한식 홍보 행사 등을 포함한 복합 한국 문화외교 행사인 '코리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어 노래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세종학당,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현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백일장, 한국 문화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지인의 관심과 참여도 또한 높은 편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4.5	5.1	5.5	1.6	5.5
명목GDP (십억\$)	61.02	52.62	59.91	59.93	63
1인당 GDP (PPP, \$)	6,900	7,320	7,730	7,810	8,200
1인당 명목 GDP (\$)	1,900	1,610	1,800	1,770	1,858
정부부채 (% of GDP)	20.23	20.65	23.33	36.8	38.5
물가상승률 (%)	13.88	17.52	14.74	11.1	10.3
실업률 (%)	5.8	9.3	9	10.5	10.5
수출액 (백만\$)	12,553.7	13,990.7	17,458.7	15,130	13,772
수입액 (백만\$)	14,012.4	19,439.2	24,292.3	21,170	23,824
무역수지 (백만\$)	-1,458.7	-5,448.5	-6,833.6	-6,040	-10,052
외환 보유고 (백만\$)	14,582.13	12,996.56	13,365.63	13,243.56	13,195.5
이자율 (%)	14	16	16	14	14
환율 (자국통화)	5,113.88	8,069.61	8,836.79	10,571.92	10,837.66

〈자료원 : IMF,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중앙은행, 2021년 통계는 예상치〉

경제 동향

1) GDP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당선 이후 농업, 섬유, 자동차 등의 국가 주요 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연평균 4%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높았으며 전년 대비 각각 6.0%, 19.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 GDP 구성비는 농수산업 28.1%, 공업 30.0%, 건설업 6.4%, 서비스업 3.3%를 기록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GDP 성장률은 1.6%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3.0%, 공업(제조업 포함)이 0.7%, 건설업이 9.2%, 서비스업이 0.1% 성장하였다.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약해지면서 다시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역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전체 교역액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교역국가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터키 순으로 나타난다.

수출은 151억 달러로 전년대비 15.5%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금이 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38.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철금속 9.2억 달러, 화학제품 8.7억 달러, 에너지 및 석유제품 6.6억 달러, 기계설비 4.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수입은 2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8%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기계설비가 89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42.1%를 차지한다. 그 뒤로는 화학제품 34억 달러, 농식품 22억 달러, 철금속 15억 달러, 에너지 및 석유제품 11억 달러, 비철금속 2.7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경제 분야에서 완제품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전체 수출에서 완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은 아직 낮고, 1차 원료 및 천연자원의 비중은 여전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외환 자유화 이후 법인이 국제거래를 위한 외화를 한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제조업 발전에 따른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WTO 가입 등을 위해 소비세와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교역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3) 환율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대대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외환제도를 자유화했는데 이후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움화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환율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환율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달러당 9,533.50숨이었으나 12월에는 10,454.26숨까지 상승했다. 2021년에 들어서도 1월 10,483.41숨에서 시작해 10월에는 10,689.46숨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연합 유로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2020년 1월 유로당 10,600.67숨에서 12월에는 12,671.68숨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들어서도 1월 유로당 12,761.98숨에서 10월에는 12,405.58숨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재국의 주요 외환 중 하나인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54.52숨에서 12월에는 141.21숨으로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에는 루블당 149.49숨을 기록했다.

4) 인플레이션

2017년 9월 환율 단일화 조치 이후 연간 10%를 상회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연초 인플레이션율은 13.0%였으나 8월 연중 최고치인 16.5%를 기록한 이후 15.2%로 마감하였다. 2020년 인플레이션은 11.1%이며, 2021년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10.0%이다.

5) 외국인 투자액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투자액은 42.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8.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1년은 9월 기준 14.9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4.6%)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1) GDP

코로나19 이전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는 2020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을 5% 후반으로 예측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으로 2019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0.3.15.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1년1~9월까지 GDP 성장률을 잠정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은 우즈벡 숨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우즈베키스탄 실질경제성장률을 5.4%로,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은 5.5%로 전망하고 있고(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년 10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을 5.6%로,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은 5.8%로 전망하고 있다.(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2)

2) 교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우즈베키스탄 교역량은 13.9%(수출 -15.5%, 수입 -12.8%)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되어 인적·물적 교류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 구매력이 감소하여 고가 제품, 비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시장 진출 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수출 회복이 더디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1월 잠정치 기준, 교역량은 379.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수출은 약 154.6억 달러로 8.9% 증가했으나 수입은 224.8억 달러로 19.7%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환율

세계 무역전쟁, 신흥국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러시아의 경기침체,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 평가절하, 유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의 요소에 따라 지속적인 환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숨화의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제 금 가격과 국가부채 추이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를 인하하고 외환거래를 자율화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수입이 수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국유재산 민영화사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추진은 우즈베키스탄 숨화가치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숨화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요 수출품목이자 외환보유고 통화인 금이기 때문에, 금의 국제시세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 인플레이션

2019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향후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2021년까지 10%, 2023년까지 5%로 설정하였는데, 실제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인플레이션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2020년에는 11.1%를 기록하였다. 2021년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10.0%로 설정하였는데, 저유가,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6%로 전망하고, 2022년에는 다소 둔화된 10.2%로 전망하였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년 10월)

5) 외국인 투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유입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2016.12.) 이

	후 추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둔화되고 해외여행이 제약을 받으면서 외국인투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팬데믹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움츠렸던 비즈니스 활동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고, 현지정부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국영자본 민영화,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추진,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스위스	3,676,827,694
2	Areas, nes	3,645,205,703
3	러시아	1,464,759,516
4	중화인민공화국	1,425,021,209
5	카자흐스탄	977,466,474
6	터키	884,561,772
7	아프가니스탄	508,241,421
8	이란	261,713,023
9	키르기스스탄	167,810,208
10	우크라이나	102,085,38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3,237,880,349
2	스위스	2,482,136,257
3	중화인민공화국	2,244,435,050
4	러시아	1,641,220,897
5	카자흐스탄	1,221,783,592
6	터키	890,678,119
7	아프가니스탄	467,085,661
8	키르기스스탄	251,157,331
9	이란	166,742,157

10	타지키스탄	137,027,11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6,571,568,404
2	스위스	2,609,514,555
3	영국	2,387,529,081
4	러시아	2,040,272,013
5	중화인민공화국	1,911,666,707
6	카자흐스탄	1,207,921,839
7	터키	1,154,621,392
8	키르기스스탄	634,433,639
9	아프가니스탄	575,234,833
10	아랍에미리트	367,586,93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영국	6,055,946,559
2	Areas, nes	5,982,668,652
3	러시아	1,738,345,653
4	중화인민공화국	1,293,356,006
5	터키	1,005,170,473
6	키르기스스탄	754,764,694
7	카자흐스탄	704,161,249
8	아프가니스탄	588,074,199
9	타지키스탄	302,219,696
10	우크라이나	149,035,94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731,945,484
2	러시아	2,715,500,374
3	대한민국	1,176,644,980
4	카자흐스탄	1,097,274,628
5	터키	618,191,197
6	독일	607,700,942
7	브라질	321,215,954
8	인도	292,869,762
9	리투아니아	265,782,774
10	라트비아	204,618,93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598,034,035
2	러시아	3,409,026,897
3	대한민국	1,952,964,072
4	카자흐스탄	1,639,066,750
5	터키	1,113,812,573
6	일본	844,523,646
7	독일	743,188,979
8	라트비아	383,263,867
9	벨라루스	374,044,216
10	우크라이나	332,196,43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073,764,390
2	러시아	4,011,380,713
3	대한민국	2,550,687,250

4	카자흐스탄	1,938,295,534
5	터키	1,304,839,940
6	독일	946,765,854
7	미국	548,491,458
8	일본	454,655,689
9	리투아니아	450,989,595
10	투르크메니스탄	401,272,02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510,069,862
2	러시아	4,085,813,472
3	카자흐스탄	2,108,337,662
4	대한민국	2,013,774,455
5	터키	1,089,606,372
6	독일	718,625,500
7	리투아니아	477,829,615
8	체코	464,304,136
9	인도	432,139,253
10	투르크메니스탄	396,674,12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674,930,450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260,021,000
3	271121	천연가스	1,389,933,240

4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3,497,799
5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85,496,838
6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317,696,491
7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271,871,645
8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202,432,142
9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87,845,003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8,347,70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909,500,000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487,541,994
3	271121	천연가스	2,423,995,199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504,611,528
5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17,879,330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39,311,229
7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25,426,597
8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212,092,950
9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190,699,106
10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182,720,30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7,246,018,287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926,412,093
3	271121	천연가스	2,263,157,047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10,130,946

5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573,050,335
6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77,319,559
7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318,963,218
8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82,810,429
9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278,912,039
10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207,988,28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1,770,319,855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571,760,517
3	271121	천연가스	564,245,933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44,624,078
5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319,932,115
6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271,249,338
7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230,455,302
8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18,609,485
9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93,674,727
10	5205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88,302,61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899	기타	661,205,904
2	300490	기타	531,080,386
3	271019	기타	336,479,690
4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04,164,565

5	440710	침엽수류	274,488,852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86,131,670
7	100199	기타	173,744,312
8	72107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146,348,950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44,178,392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39,900,41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899	기타	834,285,130
2	300490	기타	565,800,040
3	271019	기타	416,190,831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6,444,925
5	170199	기타	304,881,733
6	4407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303,238,737
7	100199	기타	271,388,194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61,281,848
9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239,417,188
10	841199	기타	213,319,18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615,489,772
2	271019	기타	612,999,682
3	940690	기타	417,566,777
4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10,746,816
5	100199	기타	362,593,475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48,245,631

7	870899	기타	334,627,409
8	4407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264,760,864
9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239,112,759
10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19,029,52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714,135,891
2	100199	기타	541,605,124
3	271019	기타	471,062,768
4	841780	기타	395,290,718
5	870899	기타	349,226,678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33,121,524
7	940690	기타	257,862,646
8	4407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255,637,212
9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212,049,764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4,978,204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1,180	18	1,162
2018	2,117	22	2,095
2019	2,338	20	2,318
2020	1,704	18	1,686
2021	1,692	21	1,67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821	0	820
2	7411	승용차	137	0	136
3	2140	합성수지	65	0	64
4	7111	원동기	53	0	52
5	7901	기타기계류	6	0	5
6	5121	의자	34	0	33
7	7251	건설중장비	37	0	37
8	7112	펌프	33	0	33
9	9990	기타 잡제품	98	0	98
10	7121	운반하역기계	3	0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788	0	788
2	7411	승용차	217	0	217
3	2140	합성수지	76	0	76
4	7111	원동기	64	0	64
5	7901	기타기계류	47	0	47
6	5121	의자	33	0	33
7	7251	건설중장비	29	0	29
8	7112	펌프	28	0	28
9	9990	기타 잡제품	24	0	24
10	7121	운반하역기계	20	0	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511	펄프	0	8	-8
2	4331	순면직물	0	2	-3
3	4213	면사	0	1	-2
4	0156	식물성한약재	0	2	-2
5	0116	과실류	0	2	-2
6	2330	칼룸비료	0	1	-1
7	0191	천연섬유원료	0	1	-1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7	0	16
9	0134	식물성액즙	0	0	-1
10	0159	음료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511	펄프	0	7	-7
2	4331	순면직물	0	4	-4

3	4213	면사	0	3	-3
4	0156	식물성한약재	0	2	-2
5	0116	과실류	0	2	-2
6	2330	칼륨비료	0	1	-1
7	0191	천연섬유원료	0	1	-1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3	0	13
9	0134	식물성액즙	0	0	0
10	0159	음료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동물 의약품		
HS Code	300230	수입액('20/US\$백만)	1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
선정사유	육류시장 성장,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수입산 기능성 제품시장 확대		
경쟁동향	러시아, 중국 등		
진출방안	전문 유통상을 통한 시장진출, 제품 테스트 필수		
품목명 2	의료기기		
HS Code	901890	수입액('20/US\$백만)	6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
선정사유	소득수준 향상, 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의료기기 주 수요처인 병원 건설 증가		
경쟁동향	중국, 리투아니아, 독일, 러시아		
진출방안	보건의료 전시회 참가, 현지 시연활동		
품목명 3	고급 엔진오일		
HS Code	271019	수입액('20/US\$백만)	47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04
선정사유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에 소개되어 있음		
시장동향	수입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수입차 보급 확대		
경쟁동향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진출방안	해외 브랜드 전문 취급 유통상을 통한 시장진출		
품목명 4	공기청정기		
HS Code	842139	수입액('20/US\$백만)	63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44
선정사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공기질 악화		
시장동향	실내생활 및 보건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		
경쟁동향	러시아, 중국, 독일		

진출방안	가전제품 취급 대형 마트 공략		
품목명 5	건설중장비 (굴삭기 등)		
HS Code	842952	수입액('20/US\$백만)	14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08
선정사유	향후 활발한 건설 활동이 예상되고 있음		
시장동향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건설업 호황		
경쟁동향	러시아,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진출방안	건축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력 바이어 발굴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의료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와 열악한 현지 의료사정으로 향후 의료보건 분야 개혁이 지속될 전망
시장동향	2020년 기준, 1인당 연 의료지출액은 89달러이며, 2024년까지 연 10%씩 성장할 전망
경쟁동향	해외의료기관
진출방안	현지 의사 및 병원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품목명 2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전자 신분증,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화 등으로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수요 증대
시장동향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경쟁동향	UAE, 중국, 홍콩, 싱가포르
진출방안	개발원조사업(ODA)를 통한 진출
품목명 3	IT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시장동향	온라인 주문, 배달, 은행앱 등 서비스 보급
경쟁동향	중국 등
진출방안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서비스 자문 등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비아랍지역 이슬람 경제협력 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터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992-02-01	1992-02-01	서아시아, 독립국가, 중동 그리고 유럽을 포괄하는 이슬람권 범지구적 자유무역협정으로 RCD(터키, 이란, 파키스탄 3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기구. 1964~1979)의 후신으로 간주되는 기구이다. 1985년 상기 3개국은 비아랍지역 이슬람 경제협력기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가 간 경제, 기술, 문화 협력을 위해 이란의 테헤란에서 협정을 맺었다. 1992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이슬람 국가들이 회원 자격으로 가입했다. 동 국가들의 가입일인 11월 28일은 ECO가 비약적으로 팽창한 날로서 자체적으로 매년 기념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FTA, CIS FTA)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2011-10-18	2012-09-20	독립국가연합은 1991. 12. 31. 소련연방 붕괴 이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조지아를 제외한 11개 국가가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가리킨다. 1993년 조지아도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 가입했으나, 2008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내 탈퇴했다. 현재 회원국은 러시아·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으로서 준회원국으로 머물고 있으며, 1994년 CIS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년 12월 지역 내 FTA 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계약에 최종 서명이 체결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다시 2009. 5. 19. FTA 협정에 관한 제1차 CIS 회원국 전문가 그룹 세션이 러시아 경제발전기구의 주도하에 개최됐다. 당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8개국(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의 대표가 참석했다. 2011년 10월 최종 서명을 거쳐 2012년 CIS FTA가 발효됐으며,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총 8개국에서 발효, 타지키스탄 1개국에서 타결 심의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2개국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Plus, GSP+)	EU	2021-04-10	2021-04-10	EU시장으로 수입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된 6,200여개 품목에 대해서 EU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STEP)	대한민국	2015년 5월 고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5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이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7. 11. 2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중 확대 정상회담 시 우즈벡 측이 한-우즈벡 FTA와 관련된 우즈벡측의 양국 간 공동연구 실시 희망에 대해 양측이 조속히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발표하였으며, 동 내용은 2019. 4. 19.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시에도 확인되었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간 화상회의에서 연내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1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개정투자보장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 추진 양해각서(MOU) 서명 (2019. 4. 19.)
---	-------------	--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WTO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2. 7. 17. WTO 가입에 관한 워킹그룹 첫 미팅 개최 후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뤄졌으나,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우즈베크 정부는 WTO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입 비준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활발한 기업가 정신,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해' 국가 프로그램 초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0년 들어 WTO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 12차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료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202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으며, 상원 제 1부의장은 관련하여 WTO 가입은 우즈베키스탄의 최우선과제이며, 미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는 미 상무장관과 WTO 가입 지원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주제네바대사(이태호 대사)가 2021.8.31일부로 WTO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수임
----------------	-----	--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EAEU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옅저버 지위로 EAEU에 가입하는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2020년 5월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옅저버 국가로서 의 EAEU 가입안을 승인하였다. EAEU 본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은 본격적인 득실을 검토한 후에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은 WTO 가입에 대 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여론은 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EAEU 가 입의 실익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 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	------	--	--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각종 공공질서, 영토 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 독극물
- 드론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 국가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에너지 표준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가전제품
- 기타 금지 물품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 12. 28.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 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2) Uzstandard 인증 획득 절차

Uzstandard 인증 획득 시 직접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인증절차

- 인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 필요서류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 제품 라벨 샘플(상품 정보)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 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서 사본(있을 경우)
- 위생증명서 사본(있을 경우)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Uzstandard

- 주소: 333A, st. Farobiy, Tashkent, 100049, Uzbekistan
- 근무: 09:00~18:00 (평일, 점심시간 13:00~14:00) /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
- 전화번호/팩스: +998-71-246-1763
- e-mail: uzst@standart.uz
- 홈페이지: www.standart.uz

3) 제약, 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2,000~3,0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 등록 신청서
- 제품 개요서
-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 기기 테스트 방법
-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 (필요시)
- 제조업체 정보

4)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 검역 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 7. 6.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서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 필요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TBT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서 WTO TBT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WTO에 무역 기술장벽(TBT)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기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21. 7. 1.부터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fat) 함량에 관한 라벨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25. 1. 1.부터는 수입되거나 현지 생산된 식품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로서 정부가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국민 가운데는 할랄인증을 취득한 식품만을 골라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농식품, 생필품,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 설비, 원재료 등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국 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은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Observer로 참여 중)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 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 0% 또는 15%가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 수수료가 0.2%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관세 부과 기준은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이나 저가 신고가 관행화되자 세관이 자체 보유한 품목별 가격 리스트를 활용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를 알아보는 법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어 및 러시아어 : <http://customs.uz/ru/lists/view/184>
- 영어 : <http://customs.uz/en/lists/view/184>

추가로 법률조회포탈(lex.uz)에서 법령번호나 법령명을 가지고 조회를 통해 관세 관련 법령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어와 일부 러시아어로만 정보를 제공한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우즈베키스탄은 국경과 직접 면한 항구가 없다. 아랄해가 있지만, 이는 호수로 분류되며, 현재에는 거의 마른 상태이다. 또한, 육로를 통해 진입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 국가의 국경을 지나야 하는 '이중내륙국가'로 분류된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해당 사항 없음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국제공항이면서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공항으로는 수도 타슈켄트시의 이슬람 카리모프 국제공항(TAS)이 있다. 이 밖에도 화물 공항으로는 나보이주 나보이시에 소재한 나보이 공항(NVI)이 허브로 많이 이용된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19년 기준 각 공항 자체 발표에 따르면, 이슬람 카리모프 국제공항은 연간 22,680회의 항공기가 이용하였고, 37,800톤의 화물을 처리었고, 이용 승객수는 약 3백만 명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나보이 공항은 연간 592회의 항공기가 이용하였고, 11,853톤의 화물을 처리하였으며, 이용 승객수는 5만여 명이었다. (* 참고: 2019년 통계가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3)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육로 운송은 어느 경로든 2개 이상 국가의 국경을 거쳐야 한다. 육로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철도운송과 항공 운송이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객과 화물도 마찬가지이다. 철도운송의 경우에는 크게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2가지 경로를 주로 이용한다. 중국횡단철도는 칭다오, 라아노닝성, 선전 등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또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거쳐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블라디보스톡이나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을 거쳐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운송 기간은 중국횡단철도가 빠른 편이나, 항구의 환적 처리나 철로 운행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협력 물류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철도운송은 거리가 멀고 기후조건이 척박하므로 특수포장 및 처리가 필요한지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도운송은 보통 개별 물류사가 통과/경유 국가 철도청과의 협약을 통해 일정한 화물량 쿼터 등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운송비용은 시기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복수의 물류사에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인증서 - OECD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을 경우 우즈벡 발급 서류 제출 불요 ◦ 회사등록 코드 사본 ◦ 거래은행 계약 ID 번호 ◦ 필요 시 해당 물품 공급 관련 대통령령, 내각령 등 관계 법령 ◦ 필요 시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과학기술위원회, 보건부 등)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하고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등을 부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10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는지 여부
-------------------------	--

2) 전시품 통관

제품의 재반송을 조건으로 임시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임시 수입, 수출에 대한 관세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수출 허가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영토 세관 당국에 의해 허가되며 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 통관 기관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세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서면 신청서 작성 시 필요 내용

- 물품 소유자 및 처리 대행자 이름 및 주소
- 상세 제품 및 기술 정보
- HS CODE 10자리 상품 분류 정보
- 상품 수량(개, kg, 리터 등) 및 가치
- 임시 수입, 수출 목적
- 제품 사용 가능 모든 유형 정보
- 물품이 사용될 장소 정보
- 임시 반입 기간
- 제품 식별 방법
- 기타 추가 정보

신청서 검토는 제출일로부터 약 15일간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세관 당국이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청서 검토 시간은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계산된다.

3) 소액물품 통관

○ 우편, 소포

- 2018.7.19 대통령령 PP-3873 “국제 우편, 소포 반입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의 경우 일반 우편은 100달러, EMS나 DHL 화물은 분기당 1,000달러 내에서 통관이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일반 우편, EMS, DHL 등에 상관없이 100달러까지 통관이 면제된다.

	○ 개인의 전자제품 및 기타 제품 통관 - 2018.6.22 내각령 No.463 “개인의 물품 운송 절차 개선 추가 조치”에 따라 도보, 차량, 철도, 강 등(항공 및 우편 제외)을 통한 개인의 국경 통과 시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다리미,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노트북 등 20여 가지 전자제품에 대하여 1인당 1개월에 품목별 1개 제품의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가 0~100% 이상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어 반드시 해당 품목의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관세 부과 기준을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어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자체 보유한 가격 리스트를 참고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세 면제 기계 설비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을 해당하는 부품의 HS CODE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적,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관 시 수출면장과 BL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류상 1건의 수출 물량에 대해 제조사가 달라 수출자가 관세 환급을 위해 2개 이상의 수출면장을 발행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후 과세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서중물류

주소	INCO INVEST Bldg., 2nd Floor, 32 Chekhov str.,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50-5676
이메일	soniya0227@sjl.co.kr
홈페이지	http://www.sjl.co.kr

○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소	2floor, 24 Oybek Str., 100015,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94-619-8600
이메일	sergei@woojingl.com
홈페이지	http://www.woojingl.com

○ 판토스

주소	8floor,Shakhrisabz 5-A,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8-150-7179
이메일	yongin.ryo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kr

◦ 태웅로직스

주소	Taewoong B/D, Fidokor Str., 7, Miraba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230-2336
이메일	joshua@twsc.co.kr
홈페이지	http://www.e-tgl.com

◦ TURKSIB MAGISTRAL

주소	1 Bunyodkor str., Tashkent, 100096, Uzbekistan
전화번호	+998-78-120-3865
이메일	sales@cargo.uz
홈페이지	http://www.turksib.uz/en

◦ TransContinental

주소	52A, Bunyodkor str., 100135,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20-3838
이메일	info@transcontinental.uz
홈페이지	http://www.transcontinental.uz/en

◦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주소	29, Shrkhon Str, Mirabad Dist, Uzbekistan
전화번호	+998-99-003-0594
이메일	isjang@ecovoice.co.kr
홈페이지	http://www.ecovoice.co.kr

<자료원 : 2020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1991년 이후 수차례 법 제정과 폐지를 거쳐 1998년 4월 30일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으로 정비, 발표된 이후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법에는 외국인투자의 정의, 투자법인 형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협정, 투자보장, 청산,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등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들을 포괄하여 종합 외국인투자법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지속적인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1) 외국인 투자 범위에 따른 구분(EWFI vs EWFCP)

-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 최소 자본금 4억 솜(Soum) 이상 (*2021년 12월 기준 환율로 약 36,800달러)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 법인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최소 전체의 15% 이상일 것
 - JV(Joint Venture, 외국인 최소 지분율 15%), FE(Foreign Enterprise, 외국인 지분 100%) 형태로 등록
 - * Joint-Stock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40만 달러 이상 기업(기업등록 당일 우즈베크 중앙은행 환율 적용)
 - 기업 소재지 Agency of State Service에 등록
- 외국 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
 -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 중 한 명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기업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등록
 - 외국인 투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동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 최소 자본금 4억 솜(Soum) 이상 (* 2021년 12월 기준 환율로 약 36,800달러)
- 1인 이상의 외국 법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돼야 함.
- 외국인의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보유 지분율 15% 이상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및 권리 보장

-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을 준수할 것
-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 투자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
- 위생, 환경 기타 다른 조건상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 경쟁업체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업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법적 안정성 및 평화로운 여가활동
 -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단, 내각령에 의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국유화는 가능하나,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충분한 보호와 보안
 - 국가적 차원의 대우
 -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번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전용 포털사이트(invest.gov.uz)를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어 이외에도 영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우즈베키스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만 달러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15만 달러 이상(카라칼파크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만 5,000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금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산업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1)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 관세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 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분배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분배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족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 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만 달러 이상 시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금감면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2)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기간에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베크 기업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3) 비세제 혜택

- 기반설비 지원: 투자금 5,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 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등 제공

4) 개별 법령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시행령과 법령에 의해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하는 분야'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 산업 및 산업별 승인·심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내각 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 전력청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 지분 규제

19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100% 외국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허가 시 동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하다. 단, 외교단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보유사용권 획득 시 토지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영구보유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채납 등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동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솜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금 결제 및 인출 제한: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영내에서의 외국환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지화인 솜화로만 결제하게 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현금으로는 급여,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 계좌개설을 할 때 연간 현금필요액을 은행에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현금인출 대신 직불카드에 급여를 이체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화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및 자금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현금 유통은 줄이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 지대	2021년 12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에는 총 21개의 경제자유특구(Free Economic Zone, 이하 FEZ)가 지정되어 있으며, FEZ에는 총 416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각각의 FEZ 별로 제조업, 제약, 농업, 관광업 등으로 특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FEZ 입주 정보, 변동 내역, 혜택, 입주 절차 등은 아래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우즈베키스탄투자자유칭(invest.gov.uz/ru/investor/sez-i-mpz/) ○ 자유무역지구관리청(sez.gov.uz/ru/) 위와 같은 경제자유특구는 2008년 나보이에 최초 조성된 이후, 지정 또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산업경제 지구나 특별산업지구 등으로 명명되었으나, 2016년 10월 '경제자유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면서 경제자유특구로 명칭을 단일화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구와 관련한 법 제도, 세금, 관세혜택 등을 통일하고 입주 및 투자문의와 관련한 공공 서비스와 행정 절차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별도의 임차료 없이 입주부지가 제공되며,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 기금과 같은 각종 세금과 기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한, 생산 기술 및 시설의 현대화, 재건축을 위한 수입품, 자체 생산을 위해 수입된 장비, 원자재, 자재 및 구성품 등에 대한 통관세(통관 수수료는 제외)의 납부 또한 면제된다. 위와 같은 세제 혜택 제공 기간은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3년 ○ 투자액 300~500만 달러: 5년 ○ 투자액 500~1,000만 달러: 7년 ○ 투자액 1,000만 달러 초과: 10년 주요 경제자유특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

산업단지

○ 나보이 경제자유특구

규모	645 헥타르
위치	나보이(Navoi) 주
임차료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Navoi Free Economic Zone (Navoi FEZ) ○ 홈페이지: https://www.feznavoi.uz/ ○ 담당자 연락처 : https://www.feznavoi.uz/ru/contacts

비고	나보이 경제자유특구는 2008년 12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첫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고 있다. 나보이 지역은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기지 건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 국가의 산업 잠재력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자동차 부품(실린더, 밸브, 조인트 및 폴리머)을 생산하는 외국기업 두 곳이 설립된 이래,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의 외국기업들도 입주해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최소 투자액 300만 유로 이상)은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 외환 및 외국인 체류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는 총 5개 산업군이며, 입주 시 인센티브는 하기 내용과 같다. 2015~2016년에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과제로 나보이 입주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이 선정돼 연구 및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 - 전기·전자제품(electronic & electrical products) - 정밀기계 및 자동차 OEM 부품(precision machineries & OEM parts for automobiles) - 의약품 및 의료제품(pharmaceutical industry & medical products) - 식품 가공 및 포장(food processing & packaging) - 플라스틱 및 폴리머(plastic goods and polymers)
----	---

○ 안그렌 경제자유특구

규모	1,638 헥타르
위치	안그렌(Angren) 지역
임차료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Angren" (Angren FEZ) ○ 홈페이지: http://www.fez.uz/ ○ 담당자 연락처 : http://www.fez.uz/page/kontakty
비고	안그렌 경제자유특구는 2012년 4월 설치령을 통해 제정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수도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발전 내각결의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에도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제자유특구 내의 공장 가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안그렌 경제자유특구의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은 전기 공업, 기계 제조, 화학/석유화학, 제약, 식료품 제조 및 과일/채소 가공업, 건축자재 생산, 가죽/신발 생산 등이며, 2021년 12월 기준, 7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 지작 경제자유특구

규모	524 헥타르
위치	지작(Jizzakh) 지역
임차료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Jizzakh" (Jizzakh FEZ) ○ 홈페이지: http://fezjizzakh.uz/ru/ ○ 담당자 연락처 : - 전화 : +998-72-221-53-02 - 팩스 : +998-72-221-5304 - 이메일 : fezjizzakh@mail.ru, info@fezjizzakh.uz
비고	지작 경제자유특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특구 3곳(나보이, 안그렌, 지작)중 가장 늦게 설립된 곳으로, 2013년 3월 故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지작 특별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하여 2013년 5월에 설립되었다. 위 결의안 따라 지작 및 시르다리아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하이 테크 및 혁신적인 생산기법을 도입한 제조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3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작 자유경제특구 운송, 생산, 기술 인프라 구축 도입 방안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도로 개발, 철도 구축, 상하수도 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JV인 Global Optical Communication Uzbekistan이 설립되어 광섬유, 기타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Arnasoy Gold Tex사가 총 1,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폭넓은 의류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작 경제자유특구에는 외국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자료원 : 해당 산업단지 홈페이지 및 주재국 언론보도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rakalpakstan)

1) 경제 발전 상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2020년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은 약 21.2조 숨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주요 산업으로는 화학, 석유화학, 식품, 섬유 및 의류 산업, 건설업 분야가 있다.

2) 인문 여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수도 누쿠스 시와 15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는 약 194만 명이다. 총 110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 중 6개의 대학교와 94개의 전문대학교를 두고 있다.

3) 농업

하절기 평균 기온은 27°C, 동절기 평균 기온은 -6°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00mm이다. 주요 재배 작물로 메론, 감자, 밀 등이 있다.

4) 광물 및 원료 산업

Beruniy 지역에 활석 618만 8천 톤, 시멘트 원재료 4,854만 5천㎥, Karauziak 지역에 질석 9만 9,900톤이 매장되어 있고 그 외 다량의 건축자재(칼륨, 인화암, 벽돌 원재료, 석고, 라임스톤 등)들이 매장되어 있다.

5) 산업 잠재력

2017년에 Nukus-pharm 자유경제특구가 설립되었다. 이곳은 공항에서 9km, 기차역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은 토지세, 소득세, 법인세, 도로교통기금 등 다양한 납세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 외 Muynak, Amudarya, Beruni, Kungrad, Takhiatash, Hodjyli, Chimbay 지역에 소형산업지구가 조성되어 있다.

6) 해외 투자

약 90여 개의 외국기업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 진출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러시아, 한국, 영국 및 카자흐스탄 기업들이다. 주요 산업 분야는 감초 뿌리 가공, 경공업 제품 생산, 건축 자재 생산, 석유 및 가스 산업 및 서비스 등이다.

○ 안디잔 (Andijan)

1) 경제 발전 상태

안디잔 지역의 2020년 지역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은 약 37.9조 숨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소비재, 섬유 및 의류 산업, 건설업 분야가 있다.

2) 인문 여건

안디잔 지역은 2개의 주요 도시(Andijan, Khanabad)와 1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체인구는 약 323만 명이다. 총 132개의 교육기관 중 4개의 대학교와 119개의 전문대학교가 있다.

3) 농업

안디잔 지역은 매우 건조하며 대륙성 기후로 하절기 평균 기온 27°C, 동절기 평균 기온 -3°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00~250mm이다. 지역 내 작물의 생장기는 273일로 타 지역에 비해 긴 편이다. 면화, 누에고치, 과일 및 채소, 멜론 재배에 적합한 기후여건을 갖추고 있다. 주요 재배 작물로 멜론, 원예, 면화 등이 있으며, 양, 소, 말 등의 사육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4) 광물 및 원료 산업

안디잔 지역의 주요 광물자원은 모래, 자갈이다. 총 2,500만㎡ 규모의 벽돌 원재료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Khanabad, Marhamat, Pahtaobod, Hudjaobod, Izbaskan, Kurgantepa에 매장되어 있다. Andijan 및 Bulakbashi 지역에 5,270만㎡의 라임스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dijan, Asaka, Pahtaobadskom, Shahrikhon, Bulakabashi에 미네랄 워터도 매장되어 있다.

5) 산업 잠재력

기계 공학, 자동차, 전력, 경공업 및 식품산업, 생화학 산업이 동 지역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동 산업에서 고품질 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6) 자동차 산업

"UzDaewooAuto"가 1996년 7월 설립되었다. 공장 부지는 72헥타르로, 현재에는 매년 약 25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는 역내 최대의 제조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분 이동에 따라 GM Uzbekistan를 거쳐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공업성이 대주주로 있는 UzAuto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Damas, Nexia, Gentra, Spark, Malibu, Cobalt 모델을 생산 중이다.

7) 해외 투자

우즈베키스탄은 CIS에서 독립한 이후 누적으로 약 14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자본을 유치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수가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사마르칸트(Samarkand)

1) 경제 발전 상태

사마르칸트 지역의 2020년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은 약 42.4조 숨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 14.1%, 공업 6.1%, 서비스업 4.4%, 농업이 2.2% 증가하였다. 이 지역의 1인당 GRP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약 973만 숨이다. 주요 산업으로는 관광, 식품, 섬유 및 의류 산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Small Business) 들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2) 인문 여건

사마르칸트 지역은 사마르칸트시를 포함한 1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체인구는 약 400만 명이다.

3) 농업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농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평균 기온은 16.5°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310~330mm이며 영양 생장기는 218~220일이다. 대표적인 농산물은 면화, 담배, 아마, 밀, 멜론 등이 있다. 특히 우르구트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잎담배 생산량의 96%를 차지하기도 한다.

4) 광물 및 원료 산업

사마르칸트 지역에는 총 90여 개의 광물 매장지가 있다. 석고 380만 톤, 시멘트 원료 29억 4,400만 톤, 벽돌 원재료 1억 4,480만㎡, 모래-자갈 혼합물 1억 720만㎡, 고령토 370만 톤, 실리콘 원재료 6만 톤, 세라믹 점토 270만 톤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산업 현황

사마르칸트는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관광산업이 대표적이다. 1,851개의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여 곳의 여행사와 호텔의 성업 중이다.

그 외 대표산업으로는 섬유 산업이 있는데, SAMARKAND EURO ASIA TEXTILE이 남성용 셔츠를 연간 약 120만 장 생산하여 러시아 등 인근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독일의 MAN 사가 7천만 유로 규모로 2009년에 세운 합작법인인 JV MAN Auto-Uzbekistan이 연간 3,000대의 트럭 및 버스를 생산하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인접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662.59	1797.34	624.69	2316.48	1725.69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5.82	9.02	1.91	3.09	1.7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83	76	74,887	238	35,085
2020	92	23	25,823	154	19,464
2021	81	16	56,444	106	51,42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4	5	5,524	16	2,985
광업	1	0	400	9	457
제조업	39	17	36,390	57	7,1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46	1	46
건설업	18	10	9,483	36	6,971
도매 및 소매업	41	17	3,967	49	2,862
운수 및 창고업	10	3	1,341	10	1,295
숙박 및 음식점업	2	1	500	3	500
정보통신업	4	1	242	6	293
부동산업	14	9	8,212	12	1,6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5	3,761	11	3,59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1	1	757	12	73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25	0	0
교육 서비스업	9	5	1,279	8	8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0	2,410	7	5,6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1	546	1	72
N/A	1	0	4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1	2	4,642	16	4,026
광업	4	2	724	3	144
제조업	34	8	9,509	57	6,056
건설업	2	1	4,010	21	4,560
도매 및 소매업	10	1	1,163	27	1,553
운수 및 창고업	5	1	491	3	485
정보통신업	4	3	142	3	142
금융 및 보험업	3	1	236	2	68
부동산업	5	1	374	5	2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1	1,032	3	1,0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1	2,000	3	200
교육 서비스업	3	0	1,000	6	5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1	500	5	4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1	550	10	929
광업	1	0	100	4	590
제조업	22	5	13,255	32	11,528
건설업	8	2	3,172	10	287
도매 및 소매업	12	3	4,278	12	3,595
운수 및 창고업	13	1	1,151	15	1,151
정보통신업	3	2	24,270	3	24,075
부동산업	9	2	6,615	9	6,5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0	1,803	2	1,8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	0	2	6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1,000	0	0
교육 서비스업	4	0	250	5	3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2	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우즈신동실리콘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메탈 실리콘
모기업명	신동에너콤

◦ 우즈코가스케미칼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천연가스 및 폴리머(HDPE, PP) 생산 및 판매
모기업명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 우즈동주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페인트
모기업명	카이온인터네쇼날㈜

◦ 글로벌콤스코대우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면필프 생산판매
모기업명	한국조폐공사, 포스코대우

◦ 신동방적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제품
모기업명	신동에너콤

◦ 포스코 텍스타일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면사 등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네셔널

○ 사마르칸트어패럴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봉제
모기업명	영원무역

○ 광진오토시스템즈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부품(윈도우레귤레이터)
모기업명	광진기계

○ 우즈성우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체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우즈거제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전기 배선 장치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동양

진출연도	1996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내장부품
모기업명	동광기연

○ 우즈동흥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시트
모기업명	KM&I

○ 우즈세명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차체제품 및 연료탱크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이래CC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공조부품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이래알터네이터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장&압축부품

모기업명	이래CS
------	------

○ 우즈이래케이블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전선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체시스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외장램프
모기업명	AMS

○ 우즈한우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한우글로벌

○ HS&K 건축사사무소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설계, 감리 등
모기업명	HS&K Architects Group

○ 소망디벨로프먼트코리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소망글로벌

○ 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예금, 무역금융, 기업금융 등
모기업명	KDB산업은행

○ 이스트텔레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통신서비스
모기업명	KT

○ 선진익스프레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운수업
모기업명	신정코리아

○ 에코비스로지스틱스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전자제품 유통 등
모기업명	에코비스

○ 한진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운송
모기업명	한진

○ 현대건설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

○ 한국석유공사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원유 탐사 등
모기업명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수출입금융지원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산업인력 송출 서비스
모기업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법무법인 화우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법률서비스
모기업명	법무법인 화우

○ 대한항공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 판토스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판토스

○ 서중물류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서중그룹

◦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 태웅인터네셔널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국내외 운송, 통관, 도매업, 서비스대행
모기업명	태웅로직스

◦ 현대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화공 및 전력 프로젝트 수행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토우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두산중공업 딜러, 삼성전자 A/S 운영, 무역 등
모기업명	해록물산

○ 아시아나항공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

○ 호텔롯데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숙박
모기업명	호텔롯데

○ 비아이디씨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상 및 철도, 육로를 통한 복합운송주선, 통관 및 포장을 포함한 창고 운영, 조선기자재 제조, 배송센터 운영 등
모기업명	비아이디씨

○ 케이티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통신 및 ICT
모기업명	KT

○ 케이와이엘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케이와이엘

○ 우즈오스템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Chassis, Steel Wheels, Control Arms
모기업명	오스템

○ 우즈오토인지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알루미늄 고압 다이캐스팅, 자동차 엔진 부품(헤드커버, 오일팬, 타이밍체인커버, 브라켓 등)
모기업명	인지에이엠티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축엔지니어링
모기업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유피알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주재원 이주화물, 일반 상업화물 등 물류
모기업명	유피알로지스틱스

<자료원 : KOTRA 2020년 진출기업 실태조사 자료 (2021.12 기준 최신자료)>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로는 유한 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개인 기업 등이 있으며, 설립 시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법인설립의 경우,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로펌이나 대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빠르고 간편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사이트 (https://fo.birdarcha.uz/s/ru_landing)를 통해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수수료도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모기업의 서명과 도장이 레터헤드(문서 상단)에 명시된 위임장
- 피위임자(현지 법인 대표자)의 여권 또는 현지 책임자의 여권 사본(현지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자회사인 경우, 해당 현지기업이 피위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 정관자본금 정보
- 피위임자의 납세자 식별번호
- 회사명
- 법인등록금
- (선택) 회사설립허가서(담당기관에서 샘플양식 제공)

지사

지사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해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 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내 지사 설립 시에는 인가주체(인가담당기관)에 지사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레터헤드(문서 상단)에는 모기업의 공인된 서명과 도장이 명시되어야 하며 문서는 우즈벡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한다.

설립시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사 주소, 유선연락처, 팩스번호, 기타 연락처
- 기업 대표자
- 총 근로자 수
- 사업분야 및 종류
- 이전 회계연도 총 판매액, 매출액, 상품매상고
- 활동성 비율(%)
- 제품 또는 서비스명
- 소유주 또는 대주주 인적정보
- 자회사, 계열사, 지사 정보(주소 및 사업분야)
- 연혁(창립자, 발전 계기 등)
- 기타정보(등록상표, 특허, 최대생산능력, 물류시설 등)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세금 면제나 제도 간편화 등의 영업행위에 유리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보이나 안그렌 등 경제특구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투자 기간이나 투자액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많다. 반면 연락사무소의 경우 혜택이 적은 만큼 의무사항도 적으므로, 현지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회사의 투자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립시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우즈벡 국가투자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 모기업(본국) 정보
- 모기업(본국) 주소, 유선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 CEO 인적정보 및 총 근로자 수
- 사업분야 및 종류
- 이전 회계연도 매출액
- 활동성 비율(%)
- 품목범위 (제품, 사업활동, 서비스 등)
- 소유주 또는 대주주 인적정보
- 모기업의 자회사, 계열사, 지사 정보(주소 및 사업분야)
- 연혁(창립자, 발전 계기 등)
- 기타정보(등록상표, 특허, 최대생산능력, 물류시설 등)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2월 제2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시장 자율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S&P와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BB-' (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서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한 종합순위 69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문화와 제도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동종업계 및 이종업계 상황과 기존 진출기업 사례를 미리 조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독자 투자: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해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자본참여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형태마다 자본금, 지분율, 설립자 등의 등록 요건에 차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법률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거나 정부 기관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처나 지방정부와 직접 협상하여 투자업종과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 합작투자: 합작투자의 경우,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언어 및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투자자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는 외국어(영어 등)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시에는 국어인 우즈베크어로 기재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하며, 러시아어나 영어는 후순위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한쪽의 의향(또는 필요)에 따라 증자나 현물출자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 한쪽의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 일정한 지분율(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분쟁해결 우즈베키스탄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창구나 중재 기관 등은 없으나, 한국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관할하는 투자대외무역부(MIFT,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Trade)에 설치된 Korea Desk(현재 명칭은 Department for Cooperation with Korea, +998-71-238-5005, info@mift.uz)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건이 아닌 일반 상업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타슈켄트국제중재센터(TIAC, Tashk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서 중재(+998-78-150-6006, info@tiac.uz)를 하기도 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1) 주식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 정의

주식회사란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폐쇄 혹은 개방 형태일 수 있으며, 개방형태는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 50인 미만의 주주로 구성돼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여타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 공개 매각을 통해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 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 간에 한해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해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기준 주주 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매각할 수 있다.

◦ 설립 자본금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 가격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선주 액면 가격은 전체 설립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40만 달러(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기본계산금(238,610숨)의 200배 이상이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격 인하 혹은 발행주식 감소 등을 통해 감소하거나, 주식 액면가격 인상 혹은 발행주식 증가 등을 통해 증가할 수 있다.

○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 액면 가액은 100숨이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 주주가 주식 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만 발행할 수 있다. 주주는 납입금의 30%를 먼저 낸 후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대금을 완전히 납입해야 하며, 주식대금 납입은 현금, 유가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각돼 그만큼 납입 자본금이 감소돼야 한다.

주식 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주식은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돼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된다.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록돼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주식, 액면가, 주주 보유 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돼야 한다.

○ 주주총회(GM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 법상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고,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돼야 한다.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주로 회사의 운영, 행정, 영리활동, 구조,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식 회사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로 정해진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이사회 또는 집행기관에 이양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60%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대리인을 통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대부분의 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나, 일부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주식 회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7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감독이사회는 주식 회사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들 외의 전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해 결정하는 기관이다. 감독이사회의 및 감독협의회의 의장의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과 기타 감독이사회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정관 또는 회사 내부규칙에 따라 규정된다.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30명 미만인 경우 감독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고, 감독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감독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경영진(Executive Body)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해 회사의 일상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 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관해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집행기관 및 감독이사회 임원(감독이사회가 있는 경우)의 재무활동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권한은 주식 회사법, 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가 승인한 내부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활동에 대해 연간 정기적인 감독을 하고, 주주총회, 감독이사회, 보통주 10% 이상을 가진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하게 된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독이사회 임원, 집행기관 및 기타 회사의 다른 지위를 겸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

1)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정의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의 유한회사 설립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 정관이 된다.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된다. 유한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해 납입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 참가자들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된다.

○ 자본금

유한회사 설립 자본금은 기본계산금(238,610숨)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등록 시점에서 납입 신고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 증명은 은행 발행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잔여 납입 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 기구가 승인한 납입 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 참가자들의 추가 자본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 참가자들의 보유 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 사원총회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다. 사원총회는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사원총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된다. 의결권 10%를 보유한 설립 참가자들은 언제라도 비상 사원총회 소집 요구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안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 방향 및 영업 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 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 및 납입 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해 설립이 가능하다.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혹은 감사)는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다.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감독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보통 사원총회 참석자 중 선임되나, 회사 혹은 설립 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 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사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가 수행해야 한다.

○ 추가 책임회사(ALC: 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한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 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 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 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된다. 만약 설립 참가인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 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 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 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2) 합자회사(Partnerships)

◦ 종류

일반 합자회사(GBP: General Business Partnerships)는 회사 설립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 합자회사(LBP: Limited Business Partnerships)는 1인 이상의 설립 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설립 참가자들도 구성된다.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겸할 수 없다. 즉 유한책임 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 납입은 금지된다.

◦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합자회사는 창업 합의 문서가 곧 회사 설립문서가 된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 임금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합자회사 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 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 회사(Private Enterprises) 제도는 2003년 '개인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해 회사 자산 범위 이외의 추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회사들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자산 형태로 가능하다.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 하게 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화우

전화번호	+998-71-238-9032
주소	14F, 107-B Amir Timur Str., 100084,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www.hwawoo.com
이메일	hck@hwawoo.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유

○ Centillaw

전화번호	+998-71-120-4778
주소	32, T.Shevchenko Str., 100060,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www.centil.law
이메일	igor.p@colibri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MYLAWYER

전화번호	+998-71-200-2505
주소	25, Amir Temur Str., 100017,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mylawyer.uz/en
이메일	info@mylawyer.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원진회계법인

전화번호	02-2038-2015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정화빌딩 8층, 9층
홈페이지	http://www.wonjinacc.com
이메일	admin@wonjinac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유
비고	우즈벡 내 지사 보유

○ KPMG우즈베키스탄

전화번호	+998-78-147-7744
주소	11F, Block A, IBC, 107-B, Amir Temur Avenue,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home.kpmg/uz/en/home.html
이메일	info@kpmg.co.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감사, 회계&세무 자문 등

○ 법무법인 현

전화번호	+998-93-398-1119
주소	10F, Block A, IBC, 107-B, Amir Temur Avenue,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hyunlaw.co.kr/renew/kor/main/main.asp
이메일	jjhoony2008@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기업자문,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등

○ S.Verenin's legal group

전화번호	+998-78-150-1506(7)
주소	64 office, 6 Osiyo str, Yunusabad district, 100000,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verenins.uz/en/
이메일	s_verenin@sverenins.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기업자문, 지적재산권, 금융 등

○ Deloitte

전화번호	+998-78-120-4445(6)
주소	75 Mustakillik str, Business center 'Inkonel', 100000,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kz/ru.html
이메일	zashurova@deloitte.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기업 회계, 컨설팅 등

<자료원 : 각사 홈페이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2017년 9월 2일 외환 자유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외환 관리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율 결정 방식

- 시장변동환율제
 - 외환거래소(RCE; Uzbekistan Republic Currency Exchange)에서 외화 수요,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
 - 시장 참여자: 중앙은행, 일반은행(매입/매도 양방향 거래 가능)
- 2019.8.20. 추가 외환시장 자유화조치 시행
 - 우즈벡 정부는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로서 2019.8.20.부터 △일일 환율변동폭 제한($\pm 0.5\%$)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외화매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매주 화요일 기준 새로운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보통은 해당 내용이 월요일 오후에 현지 언론에 보도된다. 아주 급격하게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에 2번 이상 환율을 고시하는 경우도 있다.

2) 기업 환전(Conversion)

- (원칙) 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소요 외환을 제한 없이 매입 가능
 -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수입, 과실 송금, 대출 상환, 해외 출장 등 용도
- 당분간 기존 환전제도 유지(은행의 중개기능, 실수요 확인 등)
 - 은행 앞 환전수요 금액 및 원하는 매입 환율을 제시
 - * 기존 작성 방식에 따라 실수요 등 명시하여 제출
 - 은행은 RCE에 전달하고, RCE는 제시된 매입환율을 기준으로 환전 여부 결정(시장환율로 체결)

3) 개인 환전

- (원칙) 거주자 개인(Individual Entrepreneurs 포함)의 환전 자유화
- 다만, 약간의 규제 적용
 - 외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개인은 은행의 Exchange Office를 통하여 매도 가능(9,300달러 내의 경우 신원확인 필요)
 - 수요자는 Conversion Operations 창구를 통하여 매입 가능. 단, 외환카드에 입금. 해외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분기 한도: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4) 국내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 대금 결제 관련

- 우즈벡 내 재화, 용역, 서비스, 대금결제는 우즈벡 통화인 솜화로만 가능

- 국제관행에 따라 국제 지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예외
- 모든 가격과 수수료, 최저 자본금은 우즈베크 솜화로 표기
 - * State fees, duties, other mandatory payments(consular fee 제외) 솜화 지급
 - * 은행 수수료(Tariffs)도 솜화 또는 비율로 표기

5) 개인 사업자 관련

- 법인 설립 없이 소비재를 수입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환전 절차에 따라 외화 매입 가능
- 법인 설립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나 외화 수입이 있는 농민의 경우 은행계좌 통하여 재화 및 용역 수입 관련 외화 지급 가능

외환 규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가 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솜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s)에 대한 현금 반출 관련 사항은 완화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인은 ①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한도 내, ② 우즈베크 이외 외국으로부터 우즈베크 금융기관으로 직접 송금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1회에 가능한 최대 반출/반입 가능한 금액은 모든 통화를 합해 1억 솜(약 9,300 미화 달러) 미만이며, 7,000만 솜(약 6,440 미화 달러) 미만은 별도 세관신고가 불필요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 = 10,848 우즈벡 숨(2021.12.22)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는 매 분기 직종별, 지역별로 공식 임금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연령, 성별, 학력, 직급별 등 다른 분류기준으로는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2021년 10월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은 월 747,300숨이다. - 최저임금은 시간당이 아닌 월 급여로 발표한다.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년에 수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goldenpage.uz〉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노동법 개관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2) 노동 관련 규정

○ 근로 기록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 현재의 근로 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 기록부(Work Books)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근로 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다. 종업원의 근로 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 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 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건강검진

사업주는 고용계약 시 사전 의료검사 및 근무 중 체계적 의료검사를 아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거나, 야간업무 또는 수송 관련 업무를 하는 자
- 식품업-유통업,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등학교-간호학교 등 아동 교육 및 양육에 직접 관계되는 기관의 교사

3) 수습 기간

고용계약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수습 기간 내에 양측은 상대방에게 3일 전 서면 통보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단, 고용주에 의한 계약 해지는 피고용인의 업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습 기간 종료 시까지 양측이 계약 종료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고용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4) 노동조합

법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불이익 또는 응징을 두려워해 단체교섭권 또는 노조가입을 잘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들은 정부 중심적이며 종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Uzbekistan)은 14개의 산업 노조와 12개의 지역 노조가 소속되어 있으며, 5,9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통령실에서 노동조합연맹 수뇌부를 지명하며, 노조이사회는 노조 수뇌부 선출에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산업별 및 지역별 노조는 국가가 통제하며, 독립적인 노조는 없다.

법에서는 파업권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영 광산업 및 에너지 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임금 적시 지불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결과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협상 과정에서 공식 노조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ILO의 13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근로시간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당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5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 시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 범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 외 초과근무는 연속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해 다른 날에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평균임금의 1배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야간 근무로 간주한다. 야간 근무의 경우 최소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 근무시간의 1/2 이상이 야간에 발생할 경우 야간근무 기간은 1시간 단축돼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해 6일 근로 1일 휴무로 교대제를 하는 경우와 같은 생산조건하에서는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동일하게 본다.

휴가

1) 휴가

다른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는 휴식, 근로능력 유지를 위해 연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직위 유지 및 평균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이며, 연간 유급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 이상이다. 연령, 건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기본 연가가 연장돼야 한다.

- 18세 미만인 자: 30일
- 장애인 1급 및 2급: 30일

연가기간은 주당 6일 근무를 기초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근무일인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 휴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병가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 출산휴가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 56일(합병증, 쌍둥이 출산 시 70일) 동안이며, 출산 전 실제 사용한 휴가일과 관계없이 완전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이후, 여성이 희망하는 경우 아동이 2세에 도달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이 희망하는 경우, 아이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부, 조부 또는 아이를 돌보는 다른 친척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여성의 종전 업무(직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업무경력 및 근무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단체협약 또는 다른 기업규정, 고용계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차기 연도에 유급 연가를 산정하는 근무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고

1)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 및 예외(노동법 제97조)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서도 사업주와 직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계약 종료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① 사업주 또는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 만료, ③ 계약상 규정된 종료근거의 발생, ④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에서 계약만료 2주 전에 계약불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가 계속 이행되면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임신 또는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질병 및 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Temporarily Disable) 등은 기업 청산 시를 제외하고 해고할 수 없다.

2) 사업주 필요에 의한 고용종료(노동법 100조, 통상적으로 “해고” 개념에 해당)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임의로 고용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 ① 기술변화, 업무량 감소로 인한 직원 감소, 생산방식 변화, 기업청산(2개월 전 예고), ② 직원의 자격(능력)부족 또는 건강상태 때문에 업무수행 부적합(2주 전 예고), ③ 근무규칙 또는 의무의 반복위반(1년 2회 이상의 징계, 3일 전 예고), ④ 중대한 근무규칙 위반(1회 위반 시 3일 전 예고), ⑤ 파트타임 직원을 대체하여 상시 근무 직원을 채용, ⑥ 기업 소유주 변경(2개월 전 예고)
 - *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주 전(비근무일 포함)에 고용계약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2주일 경과 후 업무를 종료할 수 있음. 건강상 이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주일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해고수당(Severance Pay)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직원의 의무위반은 제외)는 월 평균임금 이상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한국에서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 최소연가(15일)를 초과하는 연가 중 전년도 미사용한 연가 등은 고용계약 종료 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기본 연가(15일)와 사회적 휴가(예: 출산휴가)는 반드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

우즈베키스탄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해고 또는 권고하여 사직할 경우에는 급여의 1~3배 범위에서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노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위 노동허가서를 근거로 해 노동활동 권리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 노동허가서와 노동활동 권리확인서의 신청 및 연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국가 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s Centers)에 방문하거나 온라인(Single window, 홈페이지 : my.gov.uz)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이민국으로 발송되며, 이민국 심사 후에 노동허가서 및 노동활동 권리확인서가 발급된다.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하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모두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는 무료로 발급된다.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노동 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투자대외무역 부에서 별도의 개인별 인증 카드(credit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2분, 근로자의 신상 설명서 2분, 고용 계약(안), 사진(2매)이 부착된 고용주의 각서, 근로자 여권 사본, 근로자의 교육 및 자격 증명서, 해당 업무 관련 외국인력 필요를 증명하는 지방노동기관의 서한, 고용 허가서 사본, 수수료 납부 은행 영수증 등이다.

사용자의 외국인 노동허가서는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되어야 하며, 법인 청산 및 우즈베크 법령 및 의무 사항의 위반,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우에 회수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보험

고용주의 경우 현행 납부 단일사회세에서 국가고용촉진펀드 0.1% 적립 외에는 별도 고용보험 부담금이 없으며 피고용인의 경우도 고용보험 부담이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용인 실업 방지 지원, 실업인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산재보험

2009년 서명된 고용주의 민사 책임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동 부상, 직업병 또는 기타 노동 수행과 관련된 건강상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민사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험가액은 고용주의 영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고용주의 영업 기간에 따른 보험가액
 - 1년 이상: 전 직원의 보험 계약 월 직전 12개월 급여 총합
 - 1년 미만: 해당 기간 전 직원의 급여 총합
 - 영업 재시작: 전 직원의 보험계약 후 첫 급여에 12를 곱한 금액의 총합

보험료는 기업의 종사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보험료 계산식: 총 보험가액 x 0.1% x 계수(최소 0.534~ 최대 6)
- 지사의 경우 계수 3.4 적용

국민연금

우즈벡 내에서 활동하는 지사나 영구사업장(PE), 법인은 고용직원에게 대하여 사회세(과거 Unified Social Payment를 현재는 Social Tax로 명칭 변경)를 납부해야 하며 이 중 대부분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된다. 사회세 세율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2021년 현행
- 예산 조직 및 국영 기업,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 법인 : 25%
- 납부세액 전체를 연금기금으로 적립
- 기타 기업: 12%
- 납부세액 전체를 연금기금으로 적립

은퇴연령은 성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충분한 근속연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 7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보유할 경우 연금 수령액 조정 등을 거쳐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은퇴연령
- 남성: 근속연수 25년 이상의 60세 근로자
- 여성: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55세 근로자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분기 첫 달 20일까지 전 분기에 대하여 납부한다. 연간 매출액 10억 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021년 현행 기본 법인세율은 15%이며 분야별 법인세율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2021년 현행 법인세율
 - 상업은행, 시멘트 제조업, 폴리에틸렌 과립 생산업 : 20%
 - 모바일통신사업자, 쇼핑물 : 20%
 - 전자상거래 등록업체 : 7.5%
 - 일반법인 : 15%
 - * 상기 상업은행, 시멘트제조업, 폴리에틸렌 제조업, 이동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법인에 적용됨

연간 매출액이 10억 숨 미만 법인의 경우 매출세(turnover tax)가 부과되는데 현행 일반매출세는 4%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체 형태와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1%부터 25%까지 다양하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매월 25일까지 전월 소득에 대해 매달 납부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2%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2021년 개인 소득세율
 -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 12%
 - 비 거주자 : 20%
- 배당세 및 이자소득세
 -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 5%
 - 비 거주자 :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대해 납부해야하며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 2019년 1월 이후 구입한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

- 연간 매출액 10억 숨 미만 : 미부과
- 연간 매출액 10억~30억 숨 :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부과
 - 일반 : 7%
 - 건설업 : 8%
 - 도소매 : 6%
 - 취사 및 호텔 산업 : 10%
 -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감사, 컨설팅, 중개 서비스 등) : 15%
 - 농산물 판매 법인(자체 생산 제외) : 4%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서비스) : 15%

○ 연간 매출액 30억 쉼 초과 : 일반 부가가치세 15% 부과

특별소비세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한다.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5~70%에 달한다. 재화, 용역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예외이다.

기타

기타 세금으로는 단일사회세, 재산세, 배당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사회세(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

- 2021년 현행

-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산 조직 및 국영 기업,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 25%
- 기타 기업 : 12%

○ 재산세

- 2021년 현행 : 2%

- 법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기한내 완공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2배로 부과

○ 토지세 : 토지사용에 대한 세금이며 지역별로 1헥타르 당 부과 세금이 정해져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매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 금액의 1/4을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매달 10일까지 연 납부 금액의 1/12을 납부해야함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청(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 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 주소 : 33, Khadra district, Tashkent city, 100000, Uzbekistan
 - 대표전화 : (998 71) 232-50-05
 - 대표팩스 : (998 71) 232-50-05
 - 홈페이지 : www.ima.uz

우즈베키스탄 민법 제4편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9장(일반규정), 제60장(저작권), 제61장(저작인접권), 제62장(산업재산권), 제63장(새로운 식물종 및 동물종에 대한 권리), 제64장(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비공개정보의 보호), 제65장(민사상 거래, 상품, 업무, 서비스 주체의 개별화수단(회사명, 상표권, 원산지표시) 등 총 7장에 걸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장 제169조(Objects of Property Rights)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59장 제1031조 지식재산권의 대상(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서는 1) 과학, 문학 및 예술작품, 2) 공연, 방송, 음악, 3) 컴퓨터용 프로그램(매뉴얼, DB), 4)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5) 생산비밀(노하우)를 포함한 비공개정보 6) 회사명, 상표명, 원산지이름 등을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법률(<https://lex.uz/acts/1023494>, 우즈베키스탄어)”에서는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시장규모가 작아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6월 '법인의 청산 절차 간소화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로 법인 청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존 청산인이 증명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관계부처에서 직접 확인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계부처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 및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1년 내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자동으로 청산되지 않는다. 청산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리스트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s://fo.birdarcha.uz/notification/liquidation)에 게시되고 있다. 1) 법인 청산 절차 ○ 해당 기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공공 서비스센터(ЦГГ) ○ 절차 및 서류 ① 청산인을 통해 법무부 산하 공공 서비스센터에 청산 신청 ② 담당 기관은 해당 기업의 청산 소식을 관계 부서와 온라인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 ③ 관계 부서는 청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청산인에게 통보 ④ 우즈베키스탄 조세위원회는 기업의 재무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감사 진행 ⑤ 채권자에게 청구권의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서면(전자) 확인서와 청구금액 통지 ⑦ 조세위원회는 세금 및 기타 지불에 대한 부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청산인과 담당 기관에 통보 ⑧ 청산인은 관련 부서의 통지서 수령 후, 은행 계좌 폐쇄 후 은행이 발행한 통지서 수령 ⑨ 계좌 폐쇄 후, 모든 회계 및 회사 서류를 국가기록보관소로 이전 ⑩ 공공 서비스센터는 청산에 필요한 절차 완료 확인 후, 기업등록시스템에 청산 사실 등록 및 청산인에게 통보 2) 파산절차 ○ 해당 기관: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 ○ 세부 절차 ① 채무자, 채권자, 검사, 세금위원회는 경제법원에 파산 신청 ② 경제법원은 채권자들의 투표에 의거 채권위원회를 구성 - 채권자들은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 획득 ③ 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법원은 파산 선고 ④ 파산선고에 따라 다음 4가지 절차 추진 가능 - 법정관리: 채권자, 정부기관 등의 감독하에 12~24개월 내 추진 -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금회수 연장 등 원만한 합의 결정 - 외부감독: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외부 감독인 영입 운영 - 청산: 소유재산 처분 및 채권 환급(청산위원회 구성)
-------------------------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21.10.1. 기준 3,507만 9,200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중은 50.8%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비중은 49.2%로 아직 도시화 수준은 낮다. 성별 비중은 남성 50.3%, 여성 49.7%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기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1~9월 기간 신규 출생인구는 670.7천 명이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132.1천 명이었다. 2021년 1~9월 기간 결혼건수는 206.7천 건, 이혼건수는 29,000 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사마라칸트주가 가장 많은 4,008.8천 명, 페르가나주가 3,878천 명, 카쉬카다르야주가 3,388.9천 명, 안디잔주가 3,237.3천 명, 타슈켄트주 2,925.8천 명 순이었다. 수도인 타슈켄트시는 2,840.8천 명을 기록했다.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Jan.-Sep. 2021〉

소비 성향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소련시절에 기술개발단지나 공업기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식량기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한 이후에도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었다. 이런 배경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해 식품류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재의 양과 질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전반적으로는 농산물과 면화 생산이 풍부하여 가격이 저렴한 탓에 식료품과 의류에는 낮은 지출성향을 보인다.

식료품 중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경우 현지의 보관시설이나 보관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구조를 보인다. 일례로 딸기, 체리와 같은 과일의 경우 제철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제철 이전이나 제철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가격이 몇 배씩 오르는 것이 다반사이다.

현지의 물가상승률이 2018년 14.3%, 2019년 15.2%, 2020년 11.1%로 두 자리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외환 환율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인은 돈이 생기면 바로 물건을 구입해 놓거나 달러, 유로 등 외환으로 환전해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감은 매우 높다. 이유로는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인구비율, 1990년대 중후반 대우그룹의 대규모 현지 투자, 연간 약 2,000명 내외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한국 파견, 한국 드라마와 K-POP 인기, 다수의 정상회담 개최, 다양한 공적원조(ODA) 사업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산업이나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제품이나 광고에 Made in Korea 또는 Technology from Korea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특히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 2020.3.15.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한국정부와 현지진출 한국기업은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비즈니스 하는 한국기업들도 의료물품을 여러 차례 무상 제공한 바 있고, 한국의 의료전문가가 코로나 대응에 관한 정책자문을 위해 현지에 파견 나와 지원한 사례들이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2020년 5월 초 시르다리아주 댐 일부 붕괴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진출기업, 교민 등이 수재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이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어 한국 국가이미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이후 독립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구소련 체제 당시의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사회주의경제 시절의 권위주의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성향이 행정 관료와 일반인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를 인식하고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인 설립이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초기부터 현지 유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모든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러시아어(우즈베크어)와 영어로 2개 언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어 원본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등이 있으므로 계약서 체결 시 이러한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처음에는 계약서 문안을 영어버전 뿐만 아니라 현지어 버전도 꼼꼼하게 살피지만 중간에 계약서 문안이 계속 바뀌는 도중에는 영어 버전에서만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어(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버전에서 바뀐 내용은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최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지어 버전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정과정에서 슬쩍 영어버전만 수정해놓고, 현지어 버전은 그대로 두거나 상대방 측에만 유리한 조항을 슬쩍 넣어 놓을 경우 실제 계약이행과정이나 분쟁과정에서 영어버전은 무시되고 현지어 버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문화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으나, 타 종교의 선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실제로 선교활동 적발 시 재판에 회부돼 추방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이자 대가족 사회로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크고 특히 아내, 여동생, 딸 등 여성 가족 일원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가족 중 여성 일원에 대한 농담이나 외모 언급 등은 삼가도록 한다.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에티켓들은 다음과 같다.

1) 복장

비즈니스 시 복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현지 기업인 또는 정부인사와의 면담 시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우즈베크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악수한다. 인사할 때는 오른쪽 손을 가슴에 대고 우즈베크어로 '아살로무 알라이کم' 이라고 인사하며, 왼사람이 오른손으로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손 악수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살로무 알라이کم' 이라는 말의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다.

초면에는 악수만 하지만 친한 사이에는 어깨를 열싸안고 포옹을 하기도 하며, 처음에는 왼쪽 어깨로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로 총 2번 포옹한다. 2번 포옹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호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감사인사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며 '라흐맷'이라 말한다. 남녀가 내외하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성 간에는 악수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눈인사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면 사이가 나빠진다는 미신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3) 선물

비즈니스 시 선물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선물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증정할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꽃을 줄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한다. 장례식 등 죽은 사람에게만 짝수로 꽃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짝수 꽃을 선물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선물을 줄 때에도 우즈베키스탄인 대부분이 이슬람교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위스키, 와인과 같은 술 종류나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은 선물로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4) 명함

우즈베키스탄은 명함 문화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정보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 아직까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명함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 초기화 단계이다 보니 무역업체가 많지 않은 것도 명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이 명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명함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명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따라서 비즈니스 미팅 시 명함을 교환하지 않는다 해서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담 후 필요하면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수기로 적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좋다.

5) 약속

엄격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면담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느긋한 심성으로 일의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일을 재촉해 적시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에티켓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바이어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바이어와 사전 연락을 진행 후, 미팅 약속을 잡을 필요가 있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Express24 (express24.uz) ○ 개요: 2018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으로, 일 평균 2,000~2,500건의 배달주문을 소화하며, 442개의 식당을 비롯해서 660여 개의 판매자가 입점해있다. 현재는 배달앱의 인기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 등으로 확장을 하는 중이다. ○ 주요 판매 품목: 모바일 기반의 음식 배달이 주력 사업이며, 이후 런칭한 Express 24 Magajin에서는 의류, 생필품, 가전제품, 운동기구, 영양제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 특징: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빠르게 배달하는 ‘15분 이내 배달(Deliver in 15 minutes)’이라는 익스프레스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Makro (makro.zakaz.uz) ○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으로 2010년에 진출하여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전국에 10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내의 대형 쇼핑몰 등에도 입점해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채소, 과일, 생고기, 베이커리 등의 신선식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식료품과 생활소비재도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전문 배달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으며, 타슈켄트에는 최초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크다. 3) Abad (www.abad.uz) ○ 개요: 직접 판매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온라인 상점으로, 20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무료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 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쇼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구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을, 빠르게, 최저가로 판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힌다. 4) Glotr (www.glotr.uz) ○ 개요: B2B를 주력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중개 서비스로 활동기업 18,500여 개 사가 가입하여 총 38만 건의 제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월 조회수 55만 건에 달하는 최대 사이트로 카테고리 분류가 잘 되어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처음에는 건축자재, 원부자재, 기계장비류 등의 B2B 품목이 주력이었으나, 현재는 정원용품, 가구류, 가전제품, 공구류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소비재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메뉴에 목록으로 상품을 보여준다. 포스팅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사이트 내 자체 상품 페이지를 개설하여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에서는 직접 구매나 주문이 불가능하며, 판매자의 연락처에 직접 연락하거나,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판매자의 평판과 함께 이용자들의 리뷰를 함께 제공한다. 5) Olx (www.olx.uz) ○ 개요: 주로 개인 간 물품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새 제품뿐만 아니라 중고제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주로 중고 생활소비재를 판매, 교환, 무상배분 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품목에는 제한이 없는 편이다. 중고차, 기계류, 반려동물, 부동산 관련 거래를 비롯해서 용역서비스 거래나 구인·구직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 특징: Torg.uz 라는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이후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OLX Group에 인수가 되어 2015년부터 지금과 같은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Olx는 Online Exchange의 약자이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기업 사례

- 포스코 텍스타일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주)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을 포함해서도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6년 페르가나 지역에 약 150만 달러를 투자해 '대우 텍스타일 컴퍼니/DTC'를 설립해 1997년 4월부터 방직 공장을 가동했으며, 1998년에는 제직 및 합사 공장설비에 대한 투자도 진행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2006년도 '갑을 페르가나'를 인수해 '대우텍스타일 페르가나/DTF'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제품은 면사 및 면직물로 2007년도부터 연간 면사 20만 톤, 면직물 1,500만m를 생산했으며, 더불어 2008년 4월 추가로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부하라텍스타일/DTB'의 일부 공장을 인수해 방직 6만 추 생산설비를 보유하게 됐다. 2009년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DTC)과 페르가나 면방법인(DTF)을 합쳐 통합 법인을 설립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 해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한 점, 내수시장 외 인근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신규 개척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OASIS와 YULDUZ 라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포스코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홈페이지(poscointltext.com)에 게재된 회사소개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고용직원이 4,000명에 달하고, 매출액은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4개 생산시설에 최신 방직설비 25만 추를 보유하고, 연간 43,000킬로미터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2) 외국기업 사례

- ITOCHU Corporation

150년 전 소규모 섬유-기모노 도매상을 시작으로, ITOCHU 종합무역상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 거래 품목은 섬유제품과 금속, 미네랄, 화학제품, 임산물, 식품류, 건설재, 보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ITOCHU 기업은 'Samarkand Automobile Factory'와 같은 많은 우즈베키스탄 업체들과 섬유산업,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TOCHU 기업은 현재 'Samarkand Automobile Factory' LLC의 주주로서 Isuzu Motors Ltd.의 조립품들을 공급해오고 있다. 공급 중인 조립품들은 'SamAuto' LLC 업체에 납품 중이며, 트럭-버스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다음은 ITOCHU를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들이다.

- Compressed Natural Gas 차량(CNG):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차량
- 8 meter bus: 최신 디자인으로 많은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에 부합하는 콘셉트의 차량
- New 700P models: 새로운 종류의 차량 새시로, Isuzu Motors의 일본 엔지니어가 개발, 'SamAuto' LLC의 버스 및 트럭 제품에 사용

현재 중소형 버스를 유일하게 현지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사마르칸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MAN Trucks &Bus RUS

MAN Trucks &Bus RUS는 2009년 8월 'JV MAN Auto-Uzbekistan'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이와 함께 SamAvto 회사의 설비를 임대해 트럭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2012년 6월 30일에는 사마르칸트 지역에 새로운 생산공장 또한 가동을 시작했다. 공장의 총면적은 1만 5,000㎡에 이르며, 매년 3,000여 대의 대형트럭들을 생산하고 있다. 2번째 생산공장은 매년 8,000대까지 트럭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타슈켄트 수도 내 쓰레기수거차량 수는(Model :MAN) 총 150대 이상에 달하며, 이 차량들은 MANCLA16 220 트럭제품의 새시(차대)를 바탕으로 생산된 차량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Mahsustrans 등이 이들 차량의 주요 구매자들이다. 현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따라 대형 트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투자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의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18년 2월 1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별도 사증 소지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유학이나 근무를 위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므로, 하기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 사전에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여 3일 이상 체류할 때는 입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보통 호텔에 투숙할 경우 처음 체크인할 때 호텔직원이 거주등록까지 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크인할 때 거주등록까지 해달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사증 발급

○ 제도 및 신청방법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발급은 단순히 외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방문 목적에 따라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내 현지/한국기업, 대사관, 무역관이나 여행사 대행을 통한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 초청장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접수하면 현지 외무부는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 소재 우즈베키스탄 공관에 비자발급 승인 전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을 위해 evisa.mfa.uz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비자신청 시 외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서 한국주재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번호(텔레кс 번호)와 전문 발송 일자를 초청장 발급 시 확인해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간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단수 비자 40~160달러, 복수 비자 150~250달러, 통과 비자 40~50달러 정도이다. 대사관 근무시간은 월(14:00~16:00, 비자 업무), 화, 수, 목(10:00~16:00, 비자 및 기타 업무), 금(10:00~13:00, 비자 업무)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에도 기타 영사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evisa.mfa.uz 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한 뒤 여권사진 2부, 여권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 내에 기타 작성용지나 주변에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단, 비자발급을 여행사에 의뢰하는 경우 위의 금액에 여행사 대행비가 추가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급받기가 힘들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 비자 발급처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7
- 전화 : 02-574-6554, 02-577-3660
- 팩스 : 02-578-0576
- 이메일: uz.embassy.seoul@gmail.com(대사관), uzconsul@naver.com(영사과)
- 홈페이지 : www.uzbekistan.or.kr
- 비자 발급 신청서 홈페이지: evisa.mfa.uz

- 전자비자(E-VISA) 발급제도: '전자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비자신

청, 수령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자격 외국인 및 그 동반(F-3) 가족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C-3-3, G-1-10)

· 2012.1.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 기간에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었던 자로, 단기 상용 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C-3-4)

- 전자비자 수수료 : 단수비자 20달러, 복수비자 35달러, 다중비자 50달러, 그룹비자 인당 20달러

2) 체류 등록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및 CIS 지역과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거주지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거주지 등록 기한은 입국 후 3일 이내지만, 정확하게 만 72시간 보다는 도착일 포함 3일 이내를 의미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등록을 마칠 것을 추천한다.

○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입국 전에 모든 사항을 고려해 체류 목적에 걸맞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 외국인 등록

- 외국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호텔과 같이 국가의 허가 하에 운영되는 숙박시설에서 체류할 경우 숙박시설에서 거주지 등록을 대행해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머물 곳을 정한 뒤 집주인과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아비르)에 가서 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체류 기간 연장

-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보다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관광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나 병원 입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상용 비자의 경우 2회(3개월)까지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2020년 3월 COVID 19 사태로 인해 관공서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항공편이 중단된 기간에는 몇 차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거주지 등록했던 것처럼 변경된 체류지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등록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3)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출입국 수속 시에는 동일한 출입국 신고서 2장을 작성해 세관의 서명을 받은 뒤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른 한 장을 작성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 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신고서에는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외환보유액 등의 간단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때 입국 시 작성했던 외환 보유금액보다 출국 시 작성하는 외환 보유금액이 더 적어야 하며, 만일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외화 반출 법에 따라 차액을 압수당하고, 세관법 위반으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입국 시 작성한 외환 보유금액을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외환 보유금액을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개인 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추가적인 물품검사 및 관세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 한도는 입국 교통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항공편을 통한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2,000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철도 및 선편(강)을 통해 입국할 때에는 1,000달러, 자동차 또는 도보로 입국할 경우에는 300달러로 면세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금액적인 면세 한도 이외에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수량제한도 있는데 술(맥주 포함)은 최대 2리터, 담배는 10갑, 향수는 3병, 귀금속은 65그램까지만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일반 수입통관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마약류, 폭발물 등은 개인 휴대품 통관 시에도 그대로 금지 또는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998-71-252-3151~3
주소	7 Afrosiab St., Tashkent, 100029, Uzbekista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z-ko/index.do
비고	각종 영사업무는 대사관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별도 건물의 영사과로 출입 가능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998-71-291-8182~3
주소	3 Talimarjan Str., Tashkent, 100005,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tashkec.uz
비고	한국어 강좌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

◦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전화번호	+998-71-252-3561
주소	12B, Afrosiyob St., Tashkent, 100031, Uzbekistan
홈페이지	http://koica.go.kr/uzb_kr/index.do
비고	Dukat Business Center 4층에 소재, 다양한 ODA사업 담당

◦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 사무소

전화번호	+998-71-238-9288
주소	04C-04,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107B, Amir Temur Str., Tashkent, 100084,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
비고	IBC 건물 4층에 소재하며, EDCF사업 담당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전화번호	+998-71-233-8098
주소	3 Amir Temur Str., Tashkent, 100000,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mfa.uz
비고	영문명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

전화번호	+998-71-232-6320
주소	45A Islam Karimov Str., Tashkent, 100003,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mineconomy.uz
비고	영문명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전화번호	+998-71-202-0210,
주소	34 Taras Shevcheko St., Tashkent, 100047,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invest.gov.uz
비고	영문명 :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전화번호	+998-71-231-3650
주소	1, Yunus Razhabiy St., Tashkent, 100029,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iiv.uz/en
비고	영문명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전화번호	+998-71-239-1252
주소	29 Istiklol St., Tashkent, 100017,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mf.uz
비고	영문명 : Ministry of Finance

○ 우즈베키스탄 국세청

전화번호	+998-71-202-3282
주소	13-A Abdullah Kadiri St., Tashkent, 100011,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tax.uz
비고	영문명 : State Tax Committee

○ 타슈켄트시청

전화번호	+998-71-210-0163
주소	51, Islam Karimov St.,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tashkent.uz
비고	영문명 : Tashkent City administration

○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998-78-150-6006
주소	4 Amir Temur St., Tashkent, 100047, Uzbekistan
홈페이지	http://www.chamber.uz
비고	영문명 :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

○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전화번호	+998-71-238-5005
주소	1 Islam Karimov St., Tashkent, 100029,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mift.uz/en
비고	영문명 : Ministry of Investments and Foreign Trade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전화번호	+998-71-202-8152
주소	63 Mustakillik St., Tashkent, 100170, Uzbekistan
홈페이지	https://www.stat.uz/en
비고	영문명 : The State Committee of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전화번호	+998-78-120-7600
주소	3, Islam Karimov st, Tashkent, 100003, Uzbekistan
홈페이지	http://www.customs.uz/en
비고	영문명 : State Customs Committee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0,848 UZS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KFC 치즈버거	단품	1.720
2	식품	비빔밥	1인분	7.94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8.42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950
5	음료	아메리카노 (현지 로컬체인 블랙베어커피)	1잔	1.94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00
7	음료	우유 (마트, 최저가)	1L	0.750
8	의료	항생제	12정	1.980
9	교통	버스요금	기본요금	0.200
10	교통	지하철요금 (1구간 기준)	기본요금	0.14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66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 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7.000
13	서비스	AI 91 휘발유	1L	0.53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4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3.730
16	여가	담배 (말보로 라이트)	1갑	2.500
17	여가	소주 (한식당 판매, 최저가)	640ml	14.04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월)	68.88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1학년 기준)	연간	1673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1년 12월 고시 기준)	%	14.000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1) 화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4년부터 자체 화폐인 쉼(Sum)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있다. 중앙은행은 1994년 1쉼, 3쉼, 5쉼, 10쉼, 25쉼, 50쉼, 100쉼 등 7종의 지폐를 신규 발행하였고, 1997년에는 200쉼권, 1999년에는 500쉼권, 2001년에는 1,000쉼권을 신규 발행하였다. 이어서 2013년 5,000쉼권이 발행되었고, 2017년에는 10,000쉼권과 50,000쉼권 2종류가 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현재 최고액권인 100,000쉼권이 신규 발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계속 새로운 고액권을 발행하는 한편 소액권 지폐에 대해서는 2020. 7. 까지 총 9가지 지폐의 유통을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되는 지폐는 1,000쉼권, 2,000쉼권, 5,000쉼권, 10,000쉼권, 20,000쉼권, 50,000쉼권, 100,000쉼권 등 7개 종류이며 이 중 100,000쉼권은 드물게 유통되고 있다. 2,000쉼권과 20,000쉼권 지폐는 2021.6.14.부터 시중에 발행되어 신규 유통되고 있다. 동전의 경우 2020. 7. 9. 기준 총 25종이 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유통되는 동전은 50쉼, 100쉼, 200쉼, 500쉼 등 4종이며, 타이인(tiyin, 쉼화의 1/100 가치) 6종(1, 3, 5, 10, 20, 50짜리)을 비롯해 쉼화 4종(1쉼, 5쉼, 10쉼, 25쉼)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 100,000쉼짜리 고액권의 경우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아 은행에서 환전할 때 100,000쉼권을 요청해도 100,000쉼권이 없다면 50,000쉼권으로 주는 것이 다반사이다. 2) 환율 2021.12.21. 기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고시한 주요 통화 환율은 미국 달러(USD) 10,828.37쉼, EU 유로(EUR) 12,195.99쉼, 러시아 루블(RUB) 145.82쉼, 영국 파운드(GBP) 14,277.21쉼, 일본 엔(JPY) 95.40쉼, 중국 위안(CNY) 1,698.06쉼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보통 매주 화요일에 차주 월요일까지 적용될 새로운 환율을 고시했었지만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수시로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시로 중앙은행 고시환율이 고시됨에 따라 정확한 환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u.uz/en/)를 방문하거나 주요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	--

환전방법

현지화인 우즈베키스탄 쉼화(Sum)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교환하는 외화에 얼룩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구겨진 경우에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깨끗한 신권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텔에서 환전할 때에는 호텔 카운터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 있는 은행 환전창구에서 하는 것이므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환전소에 가면 전광판에 달러화, 유로화, 러시아 루블화 등 취급하는 주요 외환의 매도환율, 매입환율이 있어 환전하기 전에 환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환율을 확인하고 실제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환을 팔고 현지화(쉼화)로 바꿀 때 은행 측에서는 동일한 2장의 종이(환전증명서)를 주면서 2장 모두에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환전증명서에 기재된 외화금액과 현지화 금액을 보고 서명해 준 뒤 해당 현지화 금액을 받으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특급 혹은 1급 호텔과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비자, 아멕스, 마스터, 은련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항공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도로는 포장 상태 및 관리 면에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타슈켄트 시내에서도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크고 작은 포트 홀(pot hole)이 많아 자동차 바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포트 홀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대형도로 보다 안쪽의 왕복 4차선이나 2차선 도로들의 경우 특히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운전자들이 이러한 포트 홀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운전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 것과 차선을 바꿀 때 좌측이나 우측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정착되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동차가 2개 차선을 물고 가다가 사전 차선변경 신호도 없이 차선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흔하고, 갓길에 주차해둔 차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거나 갑자기 문을 열고 타는 경우도 있어 항상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오히려 사고방지 차원에서 경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기분 나빠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횡단보도라고 할지라도 길가에 표지판만 세워져 있거나 별도의 횡단보도 표시 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반대로 보행 시에도 우회전과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 난폭 운전자 및 신호 위반 운전자도 주의해야 한다.

버스

버스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매우 청결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버스를 탈 때는 따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버스 안에 버스를 걷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므로 그때 돈을 지불하면 된다. 한국과는 달리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내부에 운행구간이 표시돼 있지 않아 처음 이용 시에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 토큰방식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교통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2020. 11. 1.부터 토큰의 사용을 금지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택시

우즈베키스탄 택시는 표식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자가용 택시와 표식을 붙이고 운행하는 회사 택시로 나뉜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면 쉽게 세울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바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하는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타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택시 앱을 이용하여 콜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주요 택시 앱으로는 Yandex taxi와 My Taxi 등이 대표적이다. 앱 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사와 탑승 차량 정보를 알 수 있고, 요금도 미터 프로그램이 있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Yandex taxi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할 때에는 먼저 앱을 실행시키면 앱에서 현재 본인의 위치를 지도상에 보여 주면서 가려는 행선지를 묻는 질문(Where are you going?)을 보여주는데 행선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a) 행선지를 묻는 질문을 클릭해 텍스트로 주소(건물명이나 회사명 포함)를 검색하는 것과 (b) Map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지도상에서 행선지를 선택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행선지를 선택하면 바로 택시종류별 요금을 보여주는데 상황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고 기다리면 택시 차

량 번호와 함께 언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준다.

호텔에 체류할 경우에는 프런트에 부탁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내에서의 이동(편도 10~15분 거리) 요금은 10,000숨 내외이며,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지만 택시를 부른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철

지하철은 2020년 1개 노선이 부분 개통하면서 4개 노선이 되었으며,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토큰형태의 승차권을 이용했었으나 정부의 교통카드방식 도입정책에 따라서 2020.11월부터는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 계단이나 역사 입구에 경찰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으며, 가방 검사나 외국인들의 경우 여권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소련 시기에 공공 건축물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전통이 남아있어 최근까지도 지하철에서의 사진 촬영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가능해졌다.

마르슈루트카

마르슈루트카는 봉고차와 비슷한 차량이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설버스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차에 탄 후 기사에게 돈을 주면 된다. 요금은 1,500~3,000숨이다. 정류장은 정해져 있으나 버스처럼 벨이 있거나 매번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 곳에 다르면 기사에게 말해서 세워달라고 말해야 한다. 시내보다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과 같이 중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한다.

다. 통신

핸드폰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시절 설치된 전화선, 교환기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신 여건이 매우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 중 이유 없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달러로 매우 비싼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Beeline, U-cell,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 UMS 등 5개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Beeline, U-cell 및 UMS는 GSM 방식이며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는 CDMA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화량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춰서 적당한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 처음 이동통신 가입과 상품선택을 위해서는 통신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Speedtest.net에서 발표한 Global Speeds April 2021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134개국 중 1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와이파이)

대표적인 인터넷 제공업체로는 Uzbektelecom과 KT의 우즈벡 투자법인 EVO가 있다. 양 통신사 모두 최근에 인터넷 속도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여 인터넷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웹 검색 및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참고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Speedtest.net에서 발표한 Global Speeds April 2021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유선광대역(fixed broadband) 인터넷 평균속도는 176개국 중 9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광명소

◦ 칼란 미나레트(Kalon Minaret)

도시명	부하라
-----	-----

주소	호자 누로보바드 거리
운영시간	8:00~20: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 '칼란'이란 타직어로 '크다'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높이가 46m에 이르러, 부하라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부하라의 상징 ◦ 1127년에 칼란칸 왕조 아루스 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부하라의 흥망을 지켜본 산증인이라 일컬어짐. - 탑의 기반부 직경은 9m, 토대부분이 지하로 10m 들어가 있으며 탑은 위로 갈수록 좁아드는 원통형으로 탑의 벽면은 14층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벽돌을 다르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장식. 벽돌들은 햇빛에 구운 갈색 벽돌이며, 달걀의 흰자와 낙타 젖으로 반죽하여 쌓았다고 함. - 미나레트는 모스크의 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다리로 이어져 있고 내부에는 105개의 나선계단이 있으며, 관리인과 잘 협상만 하면 올라갈 수도 있음(현재, 공식적으로는 금지) ◦ 미나레트는 사막의 등대로서 사막 여행객에게 있어 중요한 길잡이였고, 또한 18세기경에는 '공개 처형장'으로 꼭대기에서 자루에 넣어진 사형수를 던졌기 때문에 '사(死)의 탑'으로 불리기도 하였음. - 최후의 사형은 1884년 ◦ 미나레트는 마을 전체가 붕괴된 대지진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파멸을 몰고 다니는 칭기즈칸에게도 파괴되지 않았던 것으로 많은 전설이 있음. - 칭기즈칸이 와서 이 탑을 올려다보다 그만 모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생각 없이 허리를 숙여 모자를 주우려 하던 칭기즈칸은 "이 탑은 나의 머리를 숙이게 한 멋진 탑이다.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했다고 함.

◦ 레기스탄 광장(Registon Square)

도시명	사마르칸트
주소	레기스톤 거리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 사마르칸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 레기스탄은 '모래땅'이란 뜻으로 옛날에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었다고 함. - 공공의 광장으로 왕의 알현실, 공공집회, 죄인의 처형 등이 행해짐. - 티무르 시대에는 대규모 노천시장이 있었으며, 그의 후손인 울루그벡 시대에 처음으로 메드레세가 세워졌으며 메드레세의 맞은편에 하나카를 세움. ◦ 광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은 그 후 샤이바니 왕조의 야한그도슈 바하도르에 의해 다른 2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임. - 3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 레기스탄 광장은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로서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그 후 구소련 시절에는 이슬람 종교의 탄압으로 다시 거대한 노천시장으로 탈바꿈함. - 지금은 이슬람 교육의 장소도 아니고, 노천시장도 아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광장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이 울루그벡 메드레세, 중간이 킬라카리 메드레세, 오른쪽이 쉬르도르 메드레세 ◦ 현재 광장은 명절이나 기념일 때 대규모의 콘서트나 행사가 열리기도 해서 무대와 좌석들이 설치되어 있고 우즈벡의 50숨짜리 지폐를 보면 레기스탄 광장이 나옴.

◦ 우즈베키스탄 국립 역사박물관(State Museum of History of Uzbekistan)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부유크 투론 거리 3번지
운영시간	10:00~17:00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 1876년 투르키스탄 공공박물관으로 문을 연 이래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박물관 개장에 도움을 준 뒤 현재는 타슈켄트 중심가에 박물관 위치 ○ 고고학적, 고전학적, 인류학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25만 점이 넘는 세계적인 수집품들을 탁 트인 전시 공간에서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박물관 중 최대 규모 - 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중앙아시아 문명 발달에 대한 사료가 풍부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Amir Temur Museum)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아미르 티무르 거리 13번지
운영시간	9:00~17:00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 1996년 아미르 티무르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국립 박물관 ○ 14~15세기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영웅인 아미르 티무르 관련 각종 사료들과 그 당시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보관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 칼타 미노르 미나레트(Kalta Minor Minaret)

도시명	히바
주소	이찬칼라 내부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 아타 다르바자(서문)를 들어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에메랄드빛 푸른 타일로 덮인 아름다운 미완성의 미나레트로 1852년에 착공되어 3년 후인 1855년에 미완성된 상태로 중단 ○ 미완성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짐. - 당시 히바 지역을 지배했던 무함마드 아민 칸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하여, 108m의 높고 멋진 미나레트를 지어 약 400km 떨어진 부하라를 감시하려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하라의 에미르 칸이 미나레트의 기술자를 매수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부하라에 보다 높은 미나레트를 건설하려고 함. 부하라로 몰래 도망을 가려던 기술자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아민칸에 의해 사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현재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역사가들은 아민 칸이 1855년에 이란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도 말함. ○ 기단부의 직경은 14.2m이기 때문에 만약 완성되었으면 70~80m의 높이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26m에서 중단된 채 있으며 칼타는 '짧다'라는 뜻

마. 식당

- 현지식당

○ 아프소나(Afsona)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52-5682
주소	T. Shevchenko St.,30, Tashkent, Uzbekistan
가격	메인요리 약 30,000~164,000숨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ABNMB그룹이 운영하는 고급스러운 우즈베크 전통 식당

○ 에이프릴(April Verdant Restaurant)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0-912-5333
주소	Zakirova St. 63, Tashkent 100202, Uzbekistan
가격	메인요리 약 45,000~200,000숨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우즈베크, 유럽, 일본 요리 패밀리 식당

○ 카라반(Caravan)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8-150-6606
주소	63 Chinobod street (Chinabad sanatorium),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30,000~120,000숨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카라반 그룹이 운영하는 고급 우즈베키스탄 정통 패밀리 레스토랑

○ 아프레스코(Affresco)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129-9090
주소	Bobur str.,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70,000~165,000숨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카라반 그룹의 시칠리아식 레스토랑으로 타슈켄트에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 아이리쉬 펍(The Irish Pub & Restaurant)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52-7842
주소	30 Tara Shevchenko str.,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40,000~140,000숨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ABNMB 그룹이 운영하는 아일랜드식 펍 및 레스토랑으로 1층은 펍, 2층은 레스토랑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한국식당

○ 미가(Miga)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7-107-8692
주소	8, Imam at-Termeziy Street
가격	면 및 밥류 약 50,000~70,000 숨, 요리 안주류 60,000~250,000 숨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다양한 크기의 방 이용 가능
비고	Textile Institute 뒷편, Yandex나 Google에서 Miga로 검색

◦ 가마솥(Gamasot)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8-128-8008
주소	그랜드미르 호텔 옆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7:00~24: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국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한강(Han Gang)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8-314-3321
주소	마가진 찜촉 뒤편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매일 바뀌는 특선메뉴가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가격수준이다.

◦ 김씨네(Kimsine)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0-323-9571
주소	바부르 공원 근처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10:00~22:30
휴무일	일요일 16:30부터 영업 시작
소개	삼겹살, 보쌈 등 다양한 메뉴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 만나(Manna)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54-1796
주소	타슈켄트 북역 근처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10:30~21: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김치찌개, 설렁탕, 수육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현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다.

◦ 해들이(Haedri)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0-370-6261
주소	페르가나 거리 15번지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9:30~21: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삼겹살, 전골, 불고기, 해산물 등 메뉴가 다양하며 맛이 좋은 편이다.
비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매장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 및 전화를 통한 주문배달영업만 하고 있다.

◦ 소담(sodam)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52-5086
주소	미라바드 시장 근처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70,000~100,000숨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찌개,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메뉴 보유
비고	한인식료품점 OK 마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압구정(apgujung)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8-305-0119
주소	바부르 공원 근처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기준) 약 85,000~120,000숨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차돌정식, 모밀정식, 찌개류, 부침개 류

◦ 마실(masil)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0-176-8489
주소	미라바드 시장 근처
가격	메인요리(식사료) 약 75,000~120,000숨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홍어, 삼합, 매운탕 등 메뉴 보유

◦ 한국관(hangukgwan)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9-812-2989
주소	Sarako St. 4, Tashkent
가격	면 및 밥류 약 80,000숨, 요리안주류 50,000~400,000숨
영업시간	10: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주중에는 매일 메뉴가 정해진 점심 스페셜 메뉴가 있고, 각종 고기류 바베큐 시설
비고	2020년도 신규 오픈한 한국식당으로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1-2층에 다양한 크기의 방들도 이용 가능

◦ 구이구이 9292(9292 Korean bbq)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33-530-0092
주소	일렉트르 아빠라트 한국교육원 건너편(안산식당 옆)
가격	식사료 40,000~55,000숨, 안주류 45,000~200,000숨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안산식당(고려인 한식당)의 바로 옆에 위치
비고	2021년도 신규 오픈하여 인테리어가 깔끔하며 바베큐시설 완비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윈덤호텔 (구 데데만 호텔)(Wyndham Hotel(구 Dedeman Ho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아미르티무르 거리 7/8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0-120-3700
홈페이지	http://www.wyndhamtashkent.com/en.html
숙박료	155달러(싱글), 185달러(트윈)
소개	호텔 체인 윈덤 그룹이 운영하는 4성급 호텔로 알라이스키 시장과 압둘라 코디르 역 주변에 위치하며 주요 관광지와의 근접해 있다.

○ 롯데 시티 호텔 타슈켄트 팰리스(Lotte City Hotel Tashkent Palace)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부육투론 거리 56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120-5800
홈페이지	https://www.lottehotel.com/tashkentpalace-city/ko.html
숙박료	180달러(싱글), 200달러(트윈)
소개	4성급의 롯데 그룹 직영 호텔로 건물자체가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지정 건물이며 독립광장 및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 그랜드 미르 호텔(Grand Mir Ho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미라바트 거리 2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140-2002
홈페이지	https://www.grandmirtashkent.com/
숙박료	155달러(싱글), 200달러(트윈)
소개	5성급 호텔로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하며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텔 중 하나이다.

○ 힐튼 타슈켄트 시티(Hilton Tashkent City)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이슬람 카리모프 거리 2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10-8888
홈페이지	https://www3.hilton.com/en/hotels/uzbekistan/hilton-tashkent-city-TASTCHI/index.html
숙박료	220달러(싱글/트윈)
소개	2019년 말 개장했으며, 타슈켄트 시티 부지에 위치하고 있음

○ 하얏트 리젠시 타슈켄트(Hyatt Regency Tashkent)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나보이 거리 1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207-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uzbekistan/hyatt-regency-tashkent/tasrt
숙박료	200달러(싱글/트윈)
소개	독립광장 및 주요 관광지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선라이즈 카라반 스테이 호스텔(Sunrise Caravan Stay Hos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미라바트 드라이브 2 45번지
전화번호	+998-71-281-4151
홈페이지	https://sunrisecaravanstay.business.site/?utm_source=gmb&utm_medium=referral
숙박료	도미토리 \$9, 개인실 19\$
소개	2015년 7월에 오픈한 부티크 게스트 하우스로 3~4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매우 좋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특별여행주의보 대상국가에 포함되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역인 남부 테르미즈지역은 테러위험지역으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이 많고 국민성 또한 전반적으로 온순한 편이지만, 외국인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이 드문 밤길을 피하며 되도록 단체로 이동하는 등 항상 신변보호 및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현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별 정보 및 대한민국 영사서비스는 외교부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 외교부 사이트: <http://www.0404.go.kr/>

전세계적인 COVID-19과 관련하여 2021.12.19. 기준 당일 신규확진자는 194명으로 2021.8.13. 역대 최고인 96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어 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나 항공사 측에 미리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코로나상황이 심각할 때 차량의 이동과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한 사례가 있고 한국과의 항공편도 정기노선이 모두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20.12.17. 기준 한국에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방역등급을 기존 황색에서 적색으로 재분류하고 PCR음성확인서를 필수 지참토록 한 바 있는데 현재도 한국은 적색국가로 분류되어 입국 시 72시간 내 PCR음성확인서(영문, 러시아어) 지참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2주간 격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 방역등급은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등급, 항공편 운항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할 항공사를 지속 접촉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운전법규 원칙에서 크게 다른 것이 (1) 비보호우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빨간불에서 우회전 불가), (2) 좌회전은 대부분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차선이 잘 지켜지지 않아 2개 차선을 동시에 물고 가다가 수시로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우즈벡 운행 차량 상당수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사고 시 배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경찰서(국번 없이 102번)에 신고 또는 근처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을 입회시켜 서류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사고 현장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사진, 가해 운전자의 운전면허 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기록보존을 위한 상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여권/지갑 분실

◦ 경찰(국번 없이 102번) 또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대사관 연락처: (대표전화) +998-71-252-3151~3, (사건·사고 긴급연락처)+998-90-029-6963 (평일 근무시간 외(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등)

- 영사 콜센터: (서울, 24시간) +82-2-3210-0404

3) 응급전화(24시간 응급실): 국번 없이 103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주택시설은 구소련시절(타슈켄트 시내의 경우 1966년 대지진 후 신축한 건설 주택 다수) 지어진 것으로, 겉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낙후하나 내부는 비교적 깔끔한 편이다. 최근 들어 고급 주택이나 현대식 고층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현대식 아파트의 특징은 갈수록 지상 주차장을 줄이고 지하주차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상에는 놀이터, 산책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거 지역에 따라 빈민촌을 연상케 하는 낙후된 주택에서부터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먼저 단독주택을 임차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임차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를 한 다고 하면 방은 침실이 몇 개가 필요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실까지 방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3 Room 아파트라고 하면 침실 2개에 거실 1개를 의미하므로 임대광고를 볼 때에나 부동산에이전트에게 매물발굴을 요청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집을 구할 때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는 집세 외에도 중개료를 줘야 하는데, 중개료는 중개인마다 다르며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가격의 3%, 임차의 경우 1개월 임차료의 50%가 일반적 수준이며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지불 주체나 요율이 없으므로 계약합의 전 이 부분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한다.

olx.uz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본인의 집을 업로드하기 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은 보통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며, 임대료의 경우 한국과 달리 대부분 별도의 보증금이 없으며 임대료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대신에 임대료 지불은 선불형태가 일반적이며 임차료 지불주기는 매달, 격월, 분기 등 다양하다.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전화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역마다 위치해 있는 전화국(ATC)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거주지 등록을 마친 뒤 관련 서류(레지스트라찌야)를 들고 가까운 통신사에서 SIM 카드를 구입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국과 같은 후불방식이 아니라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 방식이며, 통신사나 도심 곳곳에 세워져 있는 무인충전기(Paynet)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를 가져와 현지 SIM 카드만 구입해 기존 휴대폰 단말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단말기만을 가져와 우즈베키스탄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전 현지정부기관을 방문해 해당 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해외 개별수입 단말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이트(<https://uzimei.uz/>)를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들이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휴대, 반입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는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 통관절차 없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져와서 IMEI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 갑자기 통신이 두절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전압/플러그

일반 가정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콘센트의 모양은 C Type이 일반적이며, 이와 유사한 F Type은 드물다. 콘센트 모양 이외에도 전기 주파수가 50Hz로 한국의 60Hz와 달라 모터나 전열기구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타슈켄트 시내에서도 정전이 발생하는데 정전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발전소, 송배전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수

수돗물은 현지인들은 정수하지 않고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갈수록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돗물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불안하다면 현지 식당 등에서는 미네랄 워터(Bottled Water)를 주문하는 것도 좋다. 일반 생수는 현지 상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생수를 구입할 때에는 탄산이 들어간 생수와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생수 2종류가 있다. 보통 탄산이 들어간 생수는 손으로 만졌을 때 탄산가스 압력으로 인해 병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점을 참고한다.

생수 주요 브랜드로는 네슬레, 하이드로라이프 등이 있으며,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에비앙, 보르조미 같은 외국산 수입 생수도 판매한다. 그리고 한국 정수기인 웅진코웨이 현지 대리점도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회사 UzAuto (이전 GM Uzbekistan)가 있어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인기차종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차질에 따라 신차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이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K5, Seltos 등 2개 모델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다. 현지에 수입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높은 수입관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참고해야한다.

자동차 구입 후에는 교통경찰(가이)의 교통과에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근 몇몇 보험사가 생겼으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며, 현지인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액의 대물, 대인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가격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아브랜드 승용차

- K5(2.0 MPI/150HP, Petrol, Prestige+) - 352,900,000숨
- 셀토스(Seltos 2.0 MPI/149HP, Petrol, Prestige, Front) - 316,900,000숨
- * 자료원 : KIA Uzbekistan 홈페이지(www.kia.uz)

현지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브랜드의 승용차(이전 GM Uzbekistan)

- 스파크(SPARK LT A/T) (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 92,821,000숨
- 라세티(Lacetti CDX A/T Elegant Plus) (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 138,126,000숨
- 말리부-2(Malibu-2 LTZ 2.0L 터보) (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선루프 포함) - 369,000,000숨

운전면허 취득

1)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단기간 운전 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한국인은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러시아어 번역인증과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체 검사서를 받은 후, 외무부 외교서비스센터에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등록 사본과 함께 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동 외교서비스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경우,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고 별도로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으나, 보증서 유효기간은 비자 기간 내에서 최장 1년이므로, 기간 만료 시 동일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개인은 할 수 없고 소속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동 보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 ① 한국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하고, 여권과 그 사본 각 1부를 지참해 대사관 영사과에 운전면허 번역인증과 운전면허 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 ② 외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
- ③ 기관 또는 회사명의로 운전면허증 보증서 신청서(첨부 자료 참조)를 작성하고, 위 1,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여권, 비자, 거주등록 사본을 첨부해, 외무부 산하 외교서비스센터에 제출
- ④ 외교서비스센터에서는 동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발급
- ⑤ 한국 운전면허증과 위 보증서를 항상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 가능

2)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발급(장기간 운전 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학원 수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학원을 3~6개월간 수강해야 한다(수강비용 약 15만 원). 대사관에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외무부에서 재차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여권사본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합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시험 없이 바로 주재국 운전면허로 바꿀 수는 없으며, 반드시 우즈베키스탄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 ①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과 그 사본 각 1부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운전면허 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 ② 위 1단계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무부에 가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재차 발급받음.
- ③ 운전면허시험장(파이자밧)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음.
- ④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사실확인서와 신체검사서를 첨부한 운전면허 응시 원서 제출
- 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 면허증을 파이자밧에 맡기고 주재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 운전 가능

3) 한국 운전면허로 별도 시험 없이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장기간 운전 시)

2015년 5월 28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한-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서명돼 동년 12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에 대한 공증 및 대한민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공증 사무소에서 우즈베크

어로 공증을 받을 경우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우즈베키스탄에는 2021.11.1. 기준 32개의 상업은행이 영업 중이다. 2021.11.1.일 기준 12개 은행이 국영은행으로 이들 12개 은행이 전체 상업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한다. 자산규모 기준 5대 국영은행은 NBU, Uzpromstroybank, Asaka bank, Agrobank, Ipoteka-bank 순이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20개 일반은행(비국영은행)은 전체자산의 18%에 불과하다.

자산규모 기준 5대 일반상업은행은 Kapital bank, Hamkorbank, Ipak Yuli bank, KDB bank Uzbekistan, Trust bank 순이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구 대우은행의 지분을 인수해 진출한 KDB Bank Uzbekistan이 현지에서 개인과 법인 영업을 한다. KDB Bank Uzbekistan(www.kdb.uz)은 본점 이외 2개 지점(Yunosobod지점, Oybek 지점)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은행들을 제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 중에서는 총자산 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BNK경남은행은 2021.4.14. 타슈켄트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도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별도의 제약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계좌 개설 시 최초 입금액은 본인이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휴대 외환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외 계좌에서 출금한 외환만큼만 가능하다. 즉, 본인 명의로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지 않은 금액은 입금할 수 없다. 외환계좌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계좌 이용료가 별도 부과된다. 외국인의 외환계좌 개설과 외환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외국환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므로 은행을 방문,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행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KDB Bank Uzbekistan으로 진출해 있어 KDB Bank Uzbekistan에서 외화(달러화, 유로화 등) 또는 현지화(숨화) 계좌를 개설해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KDB Bank Uzbekistan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후 직접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몇몇 호텔에 ATM기가 있으나 ATM기 내에 외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때는 통장과 여권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KDB Bank Uzbekistan의 경우 2021.11.1.일자 수수료율(General Tariffs)에 따르면, 외환을 입금할 때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외환을 계좌에서 인출할 때에는 인출금액의 0.5%가 수수료로 부과(KDB Uz에서 발행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로 인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율 적용)되며, 만약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비자카드 또는 마스터카드로 외환을 인출하게 되면 2%의 인출수수료가 적용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TIS)

도시명	타슈켄트
-----	------

커리큘럼	미국식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으며, 유치원(Preschool 및 Kindergarten)과정은 물론 초등과정부터 고등학교(1~12학년)까지 운영한다. 고교2학년(11학년)부터 고교3학년(12학년) 2년간에 걸쳐 IB Diploma 과정을 운영하지만, 미국고교에서 운영하는 AP과정은 운영하지 않고있다.
학비	입학금 약 3,000달러, 1년 과정 약 21,000달러 (6학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tashschool.org/
비고	2021.12.17. TIS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학생 465명, 교직원 96명이고, 1994년 UN 상주 조정관과 5개 대사관(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학교 홈페이지는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3개국어 버전이 있다.

◦ British School

도시명	타슈켄트
커리큘럼	영국식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으며, 취학전과정부터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까지 제공한다. 대학진학을 위한 AS-Level(Advanced Supplementary Level)과 A-Level(Advanced Level)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대륙식 IB과정이나 미국식 AP과정은 제공하지 않는다.
학비	평가시험료(Assessment Fee) - 550,000 숨/1인당 발전기금(Development Contribution) -44,428,000 숨/가족당 수업료(Tuition Fee) - 76,077,000 숨(Pre-nursery, half day)부터 173,700,000 숨(13학년)까지 학년에 따라서 다양함.
홈페이지	http://britishschool.uz
비고	2010년 개교하였으며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Upper Campus와 취학 전,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Lower Campus로 구분 된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현지학교

◦ 000번 쉬콜라

도시명	타슈켄트
커리큘럼	우즈베키스탄에는 초, 중, 고등교육과정을 나누지 않고 '쉬콜라'에서 11년간 교육과정을 받는다. 쉬콜라에서는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크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차츰 우즈베크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비	등록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소액의 지원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입학전 물품으로 기부를 하기도 한다(쉬콜라 교장과 입학전 협의 요망).
홈페이지	https://www.uzedu.uz
비고	쉬콜라는 따로 이름이 없고 번호로 구분된다(예: 1번 쉬콜라, 49번 쉬콜라).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마. 병원

○ 타슈켄트국제병원 (UN병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타슈켄트, 사라쿨 38번지
전화번호	+998-90-327-3378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 국립 제2병원 한의진료센터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아카뎜 고라독 ATC(아떼에스) 맞은편
전화번호	+998-71-262-5758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부인과 전문의

○ 중앙응급의료과학센터 (구 16번 병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타슈켄트, 프라하드스카야 2번지
전화번호	+998-71-150-4600
진료과목	외과, 신경외과
비고	응급치료만 가능하며,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치료나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쭈’ 마가진 (타슈켄트 중앙백화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나보이 극장 옆
비고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쭈’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중앙 백화점을 의미하는 머리글자 모음이 다. 구소련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적한 소규모 백화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가격대가 높은 편으로 현지인들은 주로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 넥스트몰 (NEXT MALL)

도시명	타슈켄트
-----	------

주소	바부르 공원 근처
홈페이지	http://nextmall.uz/
비고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소형 종합 쇼핑몰이다. 1층에는 슈퍼와 각종 잡화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 3층은 주로 의류가 판매되고 있다. 3층에는 작은 영화관도 겸비돼 있고, 4층은 패스트푸드 코너와 오락실이 있다.

○ 사마르칸드 다르바자 (SAMARQAND DARVOZA)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철수시장 근처
홈페이지	https://sdmall.uz/
비고	현재 타슈켄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합 쇼핑몰로, 고급 인테리어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며 2층, 3층에는 고급 브랜드 의류와 잡화 등이 있으며, 4층에는 영화관과 어린이 놀이방, 오락실이 있고 5층은 패스트 푸드코너와 각종 음식점이 있다.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복잡하기도 하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식품점

○ 까르진카 슈퍼마켓 (Korzinka Supermarket)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한국관 뒤, 줌마가진 근처, 알라이스키 바자르 근처 등
취급 식료품	일반 식료품
비고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 오픈한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 잡화 등 거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korzinka.uz/en/

○ 마크로 슈퍼마켓 (Makro Supermarket)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그랜드미르 호텔 옆, 러시아 대사관 옆 등
취급 식료품	일반 식료품
비고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 오픈한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 잡화 등 거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makromarket.uz/

○ 까르푸 (Carrefour Uzbekistan)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유누사바드, 카라타쉬 등 3개 점포
취급 식료품	식료품, 잡화, 신발 의류 등과 함께 까르푸 자체브랜드 제품도 판매

비고	타슈켄트에 2020년 12월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3개 점포를 오픈했으며 식료품, 잡화, 신발의류 등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www.carrefouruzbekistan.com/uz
----	---

○ 매그넘(Magnum Cash & Carry)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Integro 쇼핑몰 내에 위치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주방용품, 장식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퍼마켓 홈페이지(mgm.uz)
비고	2021년 12월 처음으로 오픈한 카자흐스탄계 소매유통체인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타슈켄트 레이크사이드 CC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타슈켄트 시내에서 차로 20분
소개	중앙아시아에 유일한 골프장으로 국제 규격을 충족하며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수영장, 드라이브 레인지, 골프텔, 빌라를 운영하고 있다.

○ 나보이 국립예술극장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브로드웨이 옆
홈페이지	http://gabt.uz/en/
소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예술극장은 그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매우 아름답다. 타슈켄트에 66년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도 건재했다고 해 우즈베크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공연을 비롯해 지젤, 호두까기인형, 라트라비아타 등의 유명 발레나 오페라도 관람할 수 있다. 유명한 공연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22-01-01	
여성의 날	2022-03-08	
나부르즈	2022-03-21	
추모일	2022-05-09	

라마단하이트	2022-05-02	라마단(금식기간)이 끝나는 날. 정부결정에 따라서 공휴일이 연장 될 가능성
쿠르반 하이트	2022-07-09	라마단(금식기간)이 끝나고 70일째 날. 정부결정에 따라서 공휴일 이 연장될 가능성
독립기념일	2022-09-01	
스승의 날	2022-10-01	
제헌절	2022-12-08	
임시휴일	2022-01-03	신년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1-04	신년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3-22	나부르즈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3-23	나부르즈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5-04	라마단하이트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5-05	라마단하이트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7-11	쿠르반 하이트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7-12	쿠르반 하이트 임시공휴일
임시휴일	2022-09-02	독립기념일 임시공휴일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타슈켄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7th Floor, 5A Shahrisabz-Tor Street, Miraba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Seoul Plaza 7층 3~4호)
 - 과거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에서 Seoul Plaza 건물로 사무실 이전(2019.8.15.)
 - 구글 지도에서 KOTRA Tashkent, Seoul Plaza를 검색해도 되며, 옆에 현대엔지니어링 건물이 있음

○ 연락처

- 전화번호: +998-78-140-0215~16
- 팩스번호: +998-78-140-0217
- e-mail: kotratashkent@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무역관이 공항에서 가깝고, 우즈베키스탄은 택시비가 비싸지 않아 일반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로 15~20분 정도 걸리며, 택시요금은 15,000~25,000 우즈베키스탄 솜(약 2달러) 정도이다.

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는 보통 미터기 요금이 아니라 부르는 요금을 흥정해서 타야 하는데, 바가지요금(3~4배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My Taxi, Yandex Go 등 택시 앱을 깔아놓았다가 타슈켄트공항에 도착해서는 바로 목적지를 입력한 뒤 다양한 택시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바가지 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글 및 안덱스 지도 또는 택시 앱에서 무역관을 검색할 때에는 Seoul Plaza로 검색할 수 있으며, Seoul Plaza 건물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7층으로 올라오면 된다.

이 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길이 복잡하여 추천하지 않는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